

오라 연세로 가자 세계로

제32호 2008학년도 연세대학교 입학전형계획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YONSEI Standing Proud

“연세는 연세인의 연세요,
한민족의 연세요,
세계의 연세이다”

- 발행인 : 정창영
- 발행처 : 연세대학교 입학처 (02)2123-4131
- 학생기자 : 권성민, 조을아, 한슬기

Contents

명예 04 시간속의 산책

비상 06 The First & The Best
08 Pride of Yonsei

진리/자유 10 아카라카를 온누리에...
12 연세, my precious!
14 캠퍼스투어
16 전공 제도
18 섬김의 리더십
20 연세인의 특권
22 동아리 소개
24 자랑스러운 연세인

전형안내 26 2008학년도 입학전형



연세대학교, 122년 역사의 시작



① 제물포



② 언더우드 부자

1885년 4월, 연세대학교의 설립자 언더우드 선교사, 인천 제물포를 통해 한국 최초의 복음 선교사로 내한
1915년, 조선기독교대학 설립.

시간속의 산책

찬란한 지성의 출발점, 연세의 역사 속으로

1885년, 선교사 알렌에 의해 세워진 '광혜원' 으로부터 연세의 발걸음은 시작되었습니다. 초기 의료사업과 교육 사업으로 시작된 '광혜원' 의 출발과 연세대학교의 지난 날을 살펴보며 숭고한 연세의 교육 정신을 되짚어 봅니다.

한국 의료의 발전을 이끈 세브란스

1885년 4월 10일,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광혜원 설립
1899년, 한국 최초의 정규 의학교인 제중원 의학부 설립



① 광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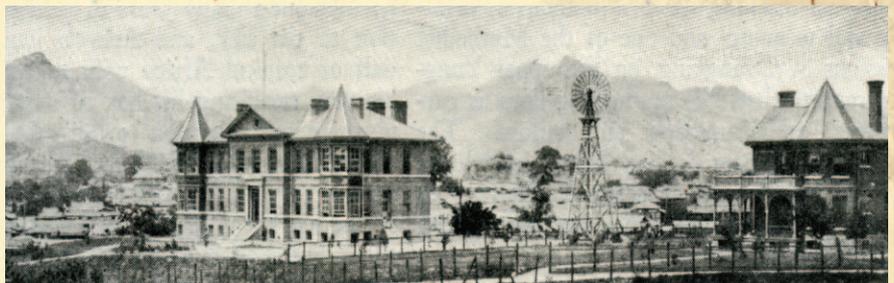
② 왕진을 나가는 알렌과 조선인 요리사



③ 가마를 타고 세브란스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



④ 한국 최초의 면허의사 제1회 졸업생



⑤ 세브란스 전경

남녀공학의 선구자



① 한국 최초의 간호교과서



② 간호원 양성소 학생들

1906년 9월, 여성을 위한 전문교육인 세브란스병원 간호원 양성소 개설.

1946년 8월, 연희전문학교가 종합대학 연희대학교로 승격되면서 입학자격 중 '남자'에 국한되었던 조항 삭제, 국내 최초로 남녀공학 실시.

연세대학교는 선교사가 세운 대학교이다. 그 초기의 역사는 1885년에 알렌이 세운 광혜원(廣惠院)에서 시작되었다. 광혜원은 의료 사업과 더불어 교육 사업도 추진하였다. 그때 교사의 자격으로 한국에 온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목사는 그 병원에서 학생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연세의 교육은 이곳에서 비롯되었다.

학교의 형태를 갖춘 것은 의학교였다. 1886년에 만들어진 제중원(濟衆院) 의학교는 에비슨 교장이 세브란스의 막대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병원을 확대 신축하고, 그 명칭을 세브란스 병원으로 고치면서 1909년에 '세브란스의학교'로 개칭되었다.

한편 언더우드는 제중원 의학교에 근무하면서 교육사업에 전력하여 1886년 5월에 고아원 형태의 언더우드 학당을 만들었고, 이를 모체로 경신 학당

을 세웠다. 대학설립을 염원하던 그는 1915년 오랜 준비 끝에 "조선기독교대학"을 설립하였고, 이는 1923년에 "연희전문학교"로 그 교명을 고쳤다.

일제시기를 거치며 교장 및 교직원에게 해임을 당하고 강제적 명칭 변경과 재산 강탈 등의 어려움을 겪지만 해방 후 1946년 연희전문학교는 연희대학교로, 1947년 세브란스의학교전문학교는 세브란스의과대학으로 승격된다. 그리고 1957년 5월, 선교사들이 돌아와 재구성한 연합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이 두 대학교는 연세대학교로 통합하게 된다.

이러한 역사를 지닌 연세대학교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성경말씀(요한복음 8:31~32)을 바탕으로 진리와 자유의 정신을 체득한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건학이념을 사명으로 받들고 있다.

국제화를 선도하는 연세



① 한국어학당과 외국어학당

1959년 4월, 한국 최초로 한국어학당(Korean Language Institute)을 대학부속기관으로 설립, 한국어교육의 기반을 세움.

1966년 9월, 국내 최초로 학부수준의 국제부(International Division)을 설립, 해외교포 자녀 및 외국인 대학생들의 수학 수요에 부응.

1987년, 한국 최초로 전 교육과정을 영어로 진행하는 국제학대학원(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을 설립, 국제 전문 인력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외 학부 졸업생의 수요를 충족시킴.



《эм블럼의 의미》

방패속의 'ㅇ'은 원만무애한 이상의 세계를 목표로 한 인격의 완성을 뜻하며 'ㅅ'은 튼튼한 기초를 닦아 박학의 기반 위에 전공을 세우려는 학문적 태도를 나타낸다.

또한 'ㅇ'은 하늘(天)을 뜻하고 'ㅡ'은 땅(地)을 의미하며, 'ㅅ'은 사람(人)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는 연세대학교 교육의 대본(大本)인 천, 지, 인(天, 地, 人)의 삼재(三才)를 상징하고 있다.

아울러 '책'은 진리를 '햇불'은 자유를 의미하고, '방패'는 이러한 실천의 두 이념을 수호함을 뜻한다.

국제화의 허브, 송도 국제화 복합단지



① Gateway to China Japan & Russia ② 연세송도국제화복합단지



③ 연세-UC 버클리 MOU 체결

122년 전, 연세대학교를 설립한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온 인천을 통해 이제 연세대학교가 세계로 나간다. 동북아 교육 및 연구의 허브가 될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가 인천에 세워지는 것이다. 연세대학교는 Residential College 개념을 도입하여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해외 유명 석

학들이 함께 생활하는 Global Campus이자 Global Academic Village를 조성하고 해외 유명 대학의 분교를 유치하여 Joint University Campus를 만들 계획이다. 또한 연세대학교의 교육시설과 국내외 기업 및 연구기관의 연구소를 결합하여 신학 협력의 중심지가 될 R&D Park를 형성하여 세계적 연구프런티어로 나아가 갈 계획을 갖고 있다.

The First & The Best

세계 명문을 향한 힘찬 도약 바로, 연세대학교의 '오늘'입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연세대학교의 당당한 오늘. 국내 명문 사학의 대표 교육기관으로서의 자부심과 그에 따른 책임감을 등에 업고, 지금도 남다르게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연세대학교의 '현재'를 살펴봅시다.

세브란스, 최초의 근대식 의료원에서 최고의 유비쿼터스 병원으로!



① 세브란스병원 본관



② 세브란스병원 atrium

2005년 5월 4일, 한국 최초의 근대식 의료원이었던 세브란스가 4년 10개월여의 공사를 마치고 지상 21층, 높이 99m로 국내에서 두 번째 큰 건물의 새 병원으로 거듭났다. 병원진찰권인 한 장의 '스마트카드'를 통해 진료 예약, 확인, 진료비 수납, 주차차량 안내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진료기록은 전자 의무기록시스템으로 관리되어 담당사와 간호사가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통해 24시간 내내 환자의 상태를 관리한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규모의 새 병원을 통해 한국의료의 글로벌 표준을 세우고 있다. 2005년에는 120주년을 기념하여 123명의 소외계층에게 무료 개안수술을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1904년 세브란스가 처음 개원할 당시 첫 수술이 백내장 수술이었던 역사와 그 상징적 맥을 잇고 있다.

연세 여성교육 100주년, 남녀공학 60주년



일찍이 여성전문 교육을 시행했고, 국내최초로 남녀공학을 시행한 연세대학교는 지난 2006년으로 여성교육 100주년을 맞이하였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여자동창회에서는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수한 젊은 여성인재를 발굴하여 이들을 격려하고 후배들에게 좋은 역할 모델을 제시하여 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연세 미래 여성 지도자 100인'을 선정하였다. 이미 대외적인 업적이 두드러진 세대보다 앞으로의 잠재력이 무궁한 국

내외의 숨어 있는 젊은 연세 여성인재를 격려한다는 취지로 30~40대의 사회 각계에서 활동 중인 여성 지도자들이 선정되었다. 또한 2007년으로 제 3기를 맞이하는 여성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 금융·회계, 기업, 과학기술, 문화기획, 언론, 정치·법률 등의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인 여동문들을 멘토로 초청하여 후배들에게 조언과 경험을 전수하는 등 여성인력의 활성화 및 여성 지도자의 육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남녀공학 선구자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조선 개화와 현대의학, 국학발전의 요람이었던 창립부터 광복까지 60년과, 조국 근대화와 민주화의 중심역할을 해온 광복 이후 62년까지, 122년 동안 연세대학교는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최초와 최고의 역할들을 도맡아 왔고, 이러한 역사들은 지금까지도 그 맥을 이어와 각 분야 속에서 여전히 눈부신 업적들을 새롭게 이루어가고 있다.

이제 창립 122주년을 맞는 연세대학교는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며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연세"의 비전을 선포하고 있다. 먼저 연세대학교는 세계적인 '연구 프론티어'로, 5년 내에 5개 분야에서 세계 10위권 수준, SCI 총 논문 수 기준 세계 50위권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최고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약하는 교육과 연구의 장으로 거듭나고자 함이다. 또한 연세대학교는 교육과 봉사를 통해 사회의 책무를 다하는

'섬김의 리더십'을 가르치고 실천함으로써 이웃을 섬기고 인류사회에 헌신하는 인재를 양성코자 한다. 이를 위해 학부수준의 기초교육을 강화하고, 연세 자원봉사단을 출범하여 기독교의 봉사정신을 현실에 구현하는 등 섬기는 지도자의 원형을 세워나가고 있다. 또한 연세대학교는 우리나라 대학교육 문화의 창조적 혁신에 앞장섬으로써 '혁신 문화'를 창달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합리적 봉사행정을 위한 행정체계의 개편, 공간과 시설 등 교육연구 환경의 개선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대학교육 문화를 이루어 나가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로써 연세대학교는 세계의 젊은이들이 배움을 얻고 싶은 대학, 세계의 석학들이 모여 연구하는 대학, 세계의 동문들이 다시 찾고 싶은 대학인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연세"로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세계 속에 우뚝 서는 연세대학교



그 시작부터 국제화의 흐름 안에 있었으며 국제 교육에 관해서도 수많은 국내 최초의 역사를 지닌 연세대학교가 이제 세계 속에서 그 위상을 굳게 세워가고 있다. 2007년 3월 기준으로 58개국 557개 기관과 교환 협정 체결을 맺었으며 국내 최고 수준, 최대 규모로 재학생들을 해외 대학으로 파견하고 있고, Study Abroad Program, Visiting Student Program, Global Internship Program을 통해 재학생들의 해외 경험을 지원하고 있다. 나아가 교환학생 파견 중심의 국제화에서 캠퍼스 자체를 국제화하려는 인바운드(Inbound) 국제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2006년 출범한 언더우드 국제대학이 그 시초로, 설립된 첫 해에 이어 작년 2007학년도 수시 모집에서도 미국의 코넬대, 미시간대, 컬럼비아대, UC 버클리대 및 영국의 킹스칼리지, 중국의 베이징대 등 해외 명문대학 합격자 24명이 연세대 언더우드 국제대학을 선택하여 입학하는 등 국제적 수준의 대학임을 이미 인정받고 있다. '연세(延世)가 세계로 뻗어나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듯이, 국제화의 선두주자인 연세대학교는 최고의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최적의 교육환경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가진 것이 다르다! 그래서, 시작부터 다르다!

연세대학교에서 '최초'에서 '최고'까지 두루두루 누리세요. 이 모든 것이 '나의 경쟁력'이 됩니다.

학부대학

국내 최초의 '1학년 교육' 전문 기관, 학부대학 연세 독수리를 '창의적 상상력을 지닌 글로벌 리더' 로!



미국 하버드대 리처드 라이트 교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입학 후 첫 번째 몇 주가 가장 결정적인 기간이다"라고 하며, 이 시기에 대학이 신입생들에게 강한 정책적 관심과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우리대학교는 이처럼 대학생활과 졸업 후 사회생활의 성공 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1학년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99년, 국내 최초로 학부대학을 설립하였다. 신입생들은 입학과 함께 학부대학에 소속되어 전공 진입 이전까지 1년 내지 1년 반 동안 학문 탐구를 위한 기초 지식을 배우고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소양을 갖추게 되며 학사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른 전공 및 진로를 탐색하게 된다.



문과대학

인문학 특성화 사업단은 2005년 교육부 특성화 사업으로 선정된 '소통적 인문학' 창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연세대학교 인문학자들이 인문학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야심 찬 기획으로 "저널리스트 초청 논리적 글쓰기", "동서양 고전 강독", "인터넷 지원", "해외 명강의 초청 연속강좌"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언더우드 국제대학

아이비리그 수준의 교육을 원하는가? UIC로 오라!

아이비리그 대학 수준의 글로벌 교육을 제공하고 인바운드(inbound) 국제화를 이르기 위해 설립된 UIC는 우리나라 최초로 모든 교육과정을 영어로 운영하는 독립된 단과대학이다. 2006년 3월 첫 신입생들의 TOEFL과 SAT 점수가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상위권의 높은 수준이었으며, OECD 총장을 맡고 있는 세계적 경제학자 도널드 존스톤, 2002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뷔트리히 박사를 비롯한 해외 석학들을 석좌교수로 초빙해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등 세계적 수준의 단과대학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뉴스위크지, 아시아 최고의 영어 전용 단과대학으로 소개!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2월호는 아시아 국가의 주요 대학들이 영어로만 수업하는 학과(단과대)들을 늘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스위크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대학교 언더우드국제대학(UIC, Underwood International College)을 소개했다. 뉴스위크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명문사학인 연세대학교는 2년 전 UIC를 출범했다. UIC는 미국이나 유럽의 최상위 기관들과 필적하는 영어 전용으로 진행되는 4년짜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며 "UIC는 다양한 장학금 제도와 높은 연봉 등으로 전 세계의 우수 학생들과 교수진을 유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좋은 장학금 혜택 뿐만 아니라 UIC는 엄격한 학사 관리와 수준 높은 교육으로 미국의 하버드, 예일 등의 명문 대학과 견줄 수 있는 경쟁력을 쌓아나가고 있다.

경영대학

연세대 경영대학, 컬럼비아대 경영대학과 교육·연구 제휴협약 체결!



컬럼비아 대학 교수가 연세대 경영대학에서 가르친다. 우리대학교 경영대학은 지난 3월 15일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과 공동 강의와 연구, 사례개발을 포함하는 전면적 제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제 연세대에서 세계적 명문인 컬럼비아 경영대학 교수들의 강의를 수강할 수 있게 되었을 뿐 만 아니라 두 대학의 교수들이 공동 연구와 사례개발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경영학 교육과 연구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세계적 건축 거장 알바로 시자(Alvaro Siza)와 함께 학생 중심적, 환경 친화적 경영대학 건물 신축이 진행되고 있다. 시자 교수는 건축의 노벨상으로 여기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 건물은 특히 학생들에게 충분한 토의실과 전자 도서관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쾌적한 식사 및 휴식 공간이 마련되도록 설계되고 있다.

법과대학

Yonsei Law 5-2-10-1



연세 로스쿨 5년 내 국내 2위, 10년 내 아시아 1위
법과대학은 현재 사법시험 국내 1위 도약을 위한 실행계획을 갖고 실무 법률가 양성을 통한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내 최고의 법과대학으로 도약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로스쿨 전환에 대해 준비하며 국제화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글로벌 법 센터 설립으로 법학연구 및 교류를 위한 아시아의 허브로 부상하고자 야심찬 계획을 구상중에 있다. 또한 연구역량 강화에 집중하여 첨단 전문 연구센터들을 설립함으로써 법과대학의 활성화를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법대 김상용 교수, 2006년도 독일 훔볼트 국제학술상 수상



법대 김상용 교수가 독일 훔볼트 학술재단(Alexander von Humboldt Stiftung)에서 매년 저명한 석학들을 추천받아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는 2006년도 훔볼트 국제학술상(Forschungspreis)을 수상하였다. 지난 1998년 허영 교수(헌법) 이후 훔볼트 국제학술상의 수상자가 국내에서 우리대학교 법대에서만 유일하게 두 명이나 배출된 것은 우리대학교 법대의 학문적 수월성과 학문의 세계적 위상을 드러내는 쾌거로 평가된다.

이과대학

자외선우주망원경연구단 윤석진·이석영·이영욱 교수팀 GALEX 프로젝트, NASA 평가 결과 최고 성과 기록

자외선우주망원경연구단은 미국 NASA, 프랑스 LAM 연구소와 공동으로 GALEX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NASA의 관측개발기술 노하우를 확보한 유일한 팀이다.

초기 은하 형성 비밀 풀 열쇠 찾았다



'구상성단들의 색분포 양분현상'의 기원을 세계 최초로 규명하는 연구로 작년 Science지 2월자에 게재되었다.

연세·하버드-스미소니언, 우주첨단기술 협력연구원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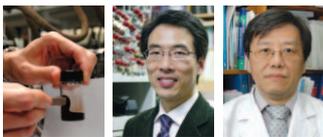
지난 1월 17일, 우리대학교는 하버드-스미소니언 천체물리연구원과 협약을 교환하고 새로 조성되는 송도국제화복합단지내 '연세·하버드-스미소니언 우주첨단기술 협력연구원'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연구원 설립을 주도하는 변용익 교수(천문우주학)는 향후 이 연구원을 세계 최고 수준의 아시아R&D 허브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골조직 발생과정에서 성장성 연골세포의 사멸 조절 기작 세계 첫 규명!



성장성 연골세포의 생존 조절 기작을 규명한 생화학과 김대원 교수팀의 연구 결과가 세계적인 의생명과학 학술잡지 'Nature Cell Biology' 3월자에 게재되었다.

숨은 암세포까지 나노가 모두 찾는다!



천진우(화학)·서진석(의과대 영상의학과) 연구팀은 암세포만을 찾아 붙는 초고감도 나노 입자를 개발, 이를 선명한 MRI 영상으로 촬영하는 데 성공하여 세계적인 학술지인 'Nature Medicine'지에 게재했다.

공과대학

공학교육인증(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

이는 졸업생이 공학교육을 통해 공학실무를 담당할 준비가 되었음을 보증해주는 것으로 최근 기업들의 채용 우대 정책, 정부 지원으로 그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연세 공학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국제경쟁력을 갖춘 공학도임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인정 받게 되고 인증된 공학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연세 공학도는 졸업과 동시에 현장 실무 능력과 리더십을 갖추게 된다.

여성 공학 리더십 캠프 개최!



우리대학교 공과대학은 지난해 9월 서울 및 수도권을 대표하는 '학생 공학교육 선도대학'으로 선정된 결과, 산업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기업으로부터 향후 5년간 지원을 받게 되어 작년 12월에 여성 리더십 캠프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행사는 우리대학교 공과대학 역사상 최초로 시도된 여학생 캠프로 많은 공대 여학생과 교수 그리고 여성 동문이 참여하여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연세대-마이크로소프트 산학 협력 체결!



이번 협약으로 우리대학교 학생 및 교수진과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소 연구원들간의 상호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향후 소프트웨어 및 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 인력 교류 및 커리큘럼 개발 등 우수이공계 인력 양성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T세포 단백질 이용, 난치성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개발



이상규 교수팀(생명공학)은 인체 유래 물질전달 펩타이드와 T세포 활성화 억제 단백질을 이용해 다양한 자가면역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을 개발하여 'Nature Medicine'지에 게재했다.

의과대학

'의생명 융합' 블루오션 개척!

우리 의료원의 의생명 융합연구로 인한 성과를 살펴보면, 프로테오믹스(proteomics, 단백질체학) 분야만 해도 지난 5년간 총 55편의 SCI 논문을 발표하는 등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보여 주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원 특정연구센터 6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치대가 2단계 BK사업단으로 선정되는 등 대형국책사업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었다.

"줄기세포 연구의 축 연세대로 옮겨진다"



김동욱 교수(의과대학 생리학교실)가 2006년 9월, 과학기술부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세포응용연구사업단장으로 선임되었다. 세포응용연구사업단 유치로 우리대학교의 줄기세포 관련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교수는 "연간 100억원 규모의 대형 사업단을 우리대학교가 유치함에 따라 줄기세포 연구의 중심 축이 우리대학교 쪽으로 많이 옮겨올 것"이라고 전망하며, "내부적으로도 경영하시는 분들이나 연구하시는 분들이 줄기세포 연구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주캠퍼스

작지만 강한 대학, 원주캠퍼스!

올해로 설립 29주년을 맞은 원주캠퍼스는 올해 Residential College를 도입하면서 대대적인 변혁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학생 전원이 교수들과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며 학부 교육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밀착형, 생활형, 멘토링 교육프로그램으로 교수와 학생들이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숙사 시설이 민자유치로 추진된다. 학생기숙사 4,830명, 교수 숙소 1,540명 총 6,370명의 규모로 2007년 9월에 기숙사가 착공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학생과 우리 학생들이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는 '글로벌 빌리지(Global Village)' 프로그램을 확대 발전시키고 외국어 전용 사용 공간을 마련해 캠퍼스의 인바운드 국제화를 도모할 계획 중에 있다. 이 외에도 2008년 개설될 국제학부(EIC) 프로그램, 리더십 과목 개설, 1, 2학년 영어학력인증제 등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또한 원주캠퍼스만의 전공별 특성과 지역적 환경을 분석하여 경쟁력 있는 분야에 연구역량을 집중하여 이미 특성화되어 있는 의공학부와 환경공학부와 같은 전공 영역을 발굴하고 있다.



세계를 올리는 연세인의 푸른 함성!

식을 줄 모르는 연세인의 끝없는 열정. 그 열정을 드넓은 노천극장에 모여 마음껏 발산합니다.
연세인이라면 누구나 환영받고 즐길 수 있는 '아카리카'의 함성이 연세를, 나아가 세계를 울립니다.





AKARAKA를 온누리에...





연세인이라는 자부심
그거 하나면
충분한 이유 아닌가요?

심왕보(기계공학과, 03)

어느 학교보다도 교원
학생 교류대상 학교가
많잖아요.

김중현(국어국문학과, 00)

연세대학교의 위치가 서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신촌에
있어서 그 어떤 대학생보다도
정보나 문화의 습득이 빠르고
용이하죠.

박계주(인문계열, 06)

연세대학교의 응원이 좋아서
왔어요. 연세대학교 응원은 군
중심리에 의존해서 한다가 보
다 개인이 스스로 즐길 수
있는 응원을 하잖아요.
자유스러우면서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게 매력 아닌가요?

박도형(경제학과, 04)



| 연세, My Precious |

나를 빛나게 하는 이름 ‘연세’

대학들은 수없이 많지만 연세인들은 한국 최고의 대학이 ‘연세대학교’라고 외칩니다. 연세대학교를 선택하는 이유는 분명 있습니다. 이유는 각자 다르지만 공통된 자부심을 가진 이들, 연세인들이 말하는 “왜 연세대여야 하는가!” 그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고등학교 때보다도 공부
를 많이 시켜 꿈이 없
게 생각하게 하는 학교 분위
기와 학생들의 뜨거운
학구열!!

심지영(인문계열, 06)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채플
도 있고 여러 기독교 관련 과
목이 있어서 기독교 신자라
면, 혹은 기독교에 관심이 있
는 학생이라면 참 많은 것들
을 얻을 수 있어요.

김동은(생명공학과, 02)

언제 가더라도
마음이 편해지는 숲,
청송대
있잖아요.

이상권(경영학과, 03)

연세대학교는 다른 대학에
비해 학과들의 특성이 잘
드러납니다. 영문과, 심리학과,
신방과 등 누구나 과를 떠올
리면 연세가 먼저 생각나는
특색있는 과들이 많아요.

김삼영(신문방송학과, 06)



간호학에 있어서는 단연 우리나라 최고의 학교고, 역사가 깊어서 모든 면에서 앞서 나가는 데다가 세계를 무대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김혜림(간호학과, 07)

연대 사학과는 단순 암기식 지식이 아니라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체득할 수 있는 지식을 학생들에게 심어 줍니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어 공부하고 싶은 의욕을 불어넣어주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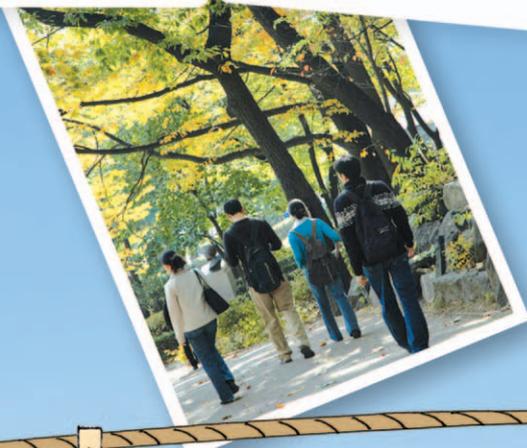
최전승(사학과, 04)

호장실, 여학생 휴게실과 같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사소한 것까지 잘 챙겨 줍니다.

이슬희(화학공학과, 06)

법대 내에서 훔볼트상을 받은 김상용교수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연세대를 선택했습니다.

김환준(법학과, 06)



제가 방송계 진출을 지망하고 있는데요, 연세대학교의 신문방송학부가 유명하잖아요. 이나운서와 PD 동문들도 많구요.

이연목(외국어문학부, 07)

다른 대학에는 고시를 하려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연세대학교는 진정한 대학생활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학생들에게 부여합니다.

심혜선(국어국문학과, 05)

연세대학교 상경대학이 역사가 가장 오래되고 이 분야에서는 가장 프로페셔널한 교수진과 시스템을 마련해 두고 있어서요.

유기성(경영학과, 0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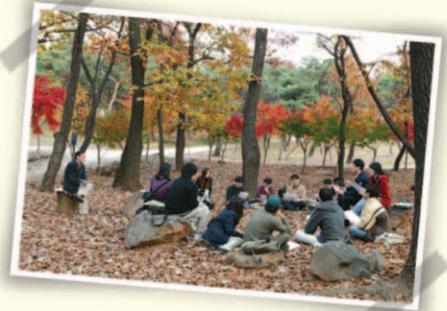
백양로

정문부터 본관인 언더우드홀까지 펼쳐진 대로. 모든 연세인이 매일 밟게 되는 곳으로, 말 그대로 연세대학생들의 하루하루가 쌓이고 스며드는 길이기도 하다. 도로 양면에 심긴 은행나무가 철따라 옷을 갈아입으며 반기는 모습은 대학생살이 아름다운 이유 중 하나가 된다. 가을이면 끝없이 펼쳐져 있는 은행잎을 밟을 때마다 노란 비단길을 걷고 있는 듯한 작은 행복을 맛볼 수 있다.



청송대

'소나무 소리를 듣는 곳'이라는 이름이 잔잔하게 와 닿는 곳. 연인들의 명소라는 전통이 있다지만 누구와 함께라도, 아니면 혼자라도 좋다. 계절마다 다른 옷을 입고 반기는 모습은 가슴이 설레기도 하지만, 오솔길 내음에 취해보노라면 한없이 차분해지기도 하는 사색과 산책의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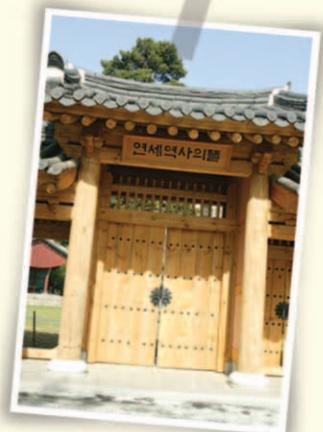
윤동주 시비

별을 노래한 시인, 윤동주의 '서시'가 새겨진 시비가 있는 곳. 날씨 좋은 날엔 벤치에 앉아 따스한 햇볕을 쬐며 그의 시 한편을 떠올려 보아도 좋고, 함께 앉은 친구와 함께 내 학창시절의 시 한편을 써내려가도 좋다. 잠시 기대앉아 있을 곳이 필요한 이를 위해 마련된 소박하고 그윽한 터.



광혜원

'연세 역사의 돌'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곳. 말 그대로 광혜원을 시초로 발전한 연세의 122년 역사가 처음 시작된 곳이기도 하다. 캠퍼스 안의 커다란 현대식 건물들 사이에서 고즈넉한 한옥의 기품을 자랑하는 곳. 봄이면 가득 피어나는 진달래와 보드라운 잔디를 누비며 연세대학교의 살아있는 역사의 숨결을 돌아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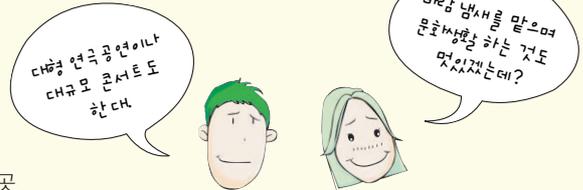


연세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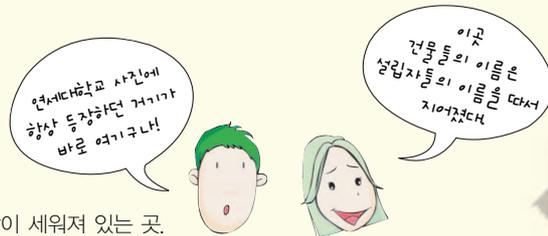
⇒⇒ 노천극장

연세대학교의 열정이 묻어있는 곳.
 신입생 입학식이나 연합체플 등 크고 작은 행사들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봄에 열리는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아카라카'가 펼쳐지는 곳이기도 하다.
 이때는 드넓은 노천극장이 온통 푸른 물결과 젊음의 열기로 가득 찬다.
 평소에 찾아가면 이 커다란 공간이 언제 그렇게 뜨거웠나 싶을 만큼 한적함으로 채워져 있다.
 넓은 공간의 여유를 만끽하며 노천극장을 짓는데 기금을 기부한 연세대학교 선배들의 이름이
 좌석 돌판 하나하나에 새겨져 있는 모습을 둘러보는 것도 운치 있는 일이다.



⇒⇒ 언더우드 동상

연세대학교의 설립자를 기념하는 동상이 세워져 있는 곳.
 이 동상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의 메인 캠퍼스를 볼 수 있는데,
 연세대학교라고 하면 누구나 떠올릴만한 담쟁이 덩굴로 둘러싸인 건물들이 바로 이것이다.
 이 메인 캠퍼스 앞에 심겨져 있는 벚나무들은 봄이면 꽃이 만개하여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잘 다듬어진 정원과 포장되지 않은 흙바닥은 건물 벽의 담쟁이덩굴과 어우러져
 이국적인 풍토를 느끼게 한다.



⇒⇒ 새천년관

캠퍼스 안에서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이국.
 국제학생들이 주로 수업을 듣게 되는 이곳은 주변의 한국어학과 국제학과와 함께
 해외에서 유학 온 국제학생들이 주로 활동하는 장소이다.
 이곳에서 동문으로 나가는 길 양편으로 늘어선 가로수 길을 때마다 싱그러움을 더해준다.
 이곳에는 국제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작은 음식점과 농구장도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해외여행이 하고 싶은데 여건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깔끔하게 디자인된 이곳에서 간단한 식사를 하고 국제학생들과 농구를 한게임 해도 좋고,
 그냥 구경만 해도 좋다. 해외에 와있는 기분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전공제도

나의 무한한 가능성과 능력을 상상해 보세요.
그 많은 것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연세대학교는 다양한 전공제도를 통해 학생들의 진로선택을 돕고 있습니다.



뭘 그렇게 울상을 짓고 있어?

난, 솔직히 대학에 들어가서도 정확히 무얼 해야 할지 모를 것 같아!
고등학교 땀 문과 이과 정도만 정하면 되지만 대학에선 전공을 딱 하나
정해야 하잖아!

우와, 넌 그게 걱정이구나. 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걱정인데. 전공 하
나를 정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



그렇게까지 걱정하진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연세대학교에선 기본적으로 광역학부제를 운영해서, 1학년 시절에 전공
지식을 배우기에 앞서 다양한 소양과 기초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있
거든. 일단은 넓게 자신이 지원한 계열 안에서도 전공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내가 속한 계열이 아닌 영역의 과목들도 수강해볼 수 있는
시스템이야.





음... 하지만 이것저것 수강해 본다고 혼자서 쉽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하긴, 아직 모든 것이 낯선 대학교 1학년생으로서 그것만으론 결정하기 쉽지 않을 수 있겠지. 그래서 모든 1학년생에겐 담당학사지도교수님이 배정되어 계셔. 1학년생들의 학사지도만을 전담하시는 분들이 학부생들의 전공이 결정될 때까지 면대면 지도로 가장 적절한 진로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지. 필요할 때마다 면담을 신청하면 친절하게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시거든. 게다가 학부대학 내에서 수차례 전공에 대한 소개행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적성과 진로를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야. 혹시 결정한 전공이 뒤늦게 자신과 맞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더라도, 절차는 좀 까다롭더라도 한 번에 한해 소속변경을 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기회는 또 주어지는 거지. 그러니 너무 부담을 갖지는 말되 신중한 결정을 위해 노력하렴.

그런데, 전공이라는 건 결국 하나만 선택해야하는 부담도 있는 걸요?

일단은, 자기에게 가장 잘 맞는 전공을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 하지만 그밖에도 복수전공과 부전공, 연계전공 등의 다양한 제도가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마. 복수전공은 처음 선택한 전공 외에 계열에 상관없이 다른 전공을 선택해서 제2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야. 제1전공의 이수요건을 시킨다면, 학적의 변동 없이 자신이 원하는 제2전공의 과목을 신청하여 일정학점 이상 수강하는 것만으로 원하는 전공을 복수로 인정받을 수 있지. 나 같은 경우에도 건축공학전공이면서 경영학을 이중전공하고 있어. 복수전공을 이수할 경우엔 두전공의 조합이 얼마나 내게 도움이 될지를 생각해야겠지. 신문방송학전공이면서 디자인을 복수전공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복수전공은 꽤 유용하게 이루어진 사례를 빈번하게 볼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보렴. 부전공이나 연계전공도 방법은 비슷해. 유용한 제도는 많으니 자신에게 가장 유익한 방법을 선택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거야.



전공제도라는 게 생각보다 많은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었군요!

왠지 해볼 만한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겨요!

하하, 그래. 그게 중요한 거야. 대학은 노력하는 만큼 얻을 수 있는 곳이니. 너희들의 대학생활에 건투를 비마.



연세에서 누리는 ‘진리’와 ‘지식’의 향연

‘배움으로 앞서고, 섬김으로 하나 되어 우리들의 푸른 꿈을 힘차게 키우자!’

1년 365일, 끝없이 펼쳐지는 젊은 열정 속에서 연세대학교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자신감과 오늘에 대한 자부심을 만들어갑니다.

교육개발센터 <http://www.yonsei.ac.kr/ctl>

교육개발센터는 교수와 학생의 연구와 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대학 교육의 수월성을 확보하고 질 높은 교육을 통한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교육개발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내 최초의 또래 튜터링 프로그램인 ‘독수리 튜터링 프로그램’은 특정과목을 열심히 공부했던 ‘튜터’와 그 내용을 공부하고 싶은 ‘튜티’가 연결되어 함께 공부하는 협동학습 프로그램이다.



C라는 언어를 배우는 공학전자계산 수업을 튜터하게 되었습니다. C언어는 간단한 개념만 이해하면 쉬울 수 있는 과목인데도 사람들이 겁을 먹거나 주위의 도움이 없어서 쉽게 포기하는 상황을 보면서 그런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신청하였습니다. 튜터링을 하게 됨으로써 얻는 점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남을 돕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있고, 둘째로는 남들을 가르치면서 스스로의 실력이 늘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세번째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도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는 언제든지 독수리 튜터링의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의 튜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한번 참여해보세요.

김민철(전기전자공학부, 05)

리더십개발원 <http://www.yonsei.ac.kr/~yl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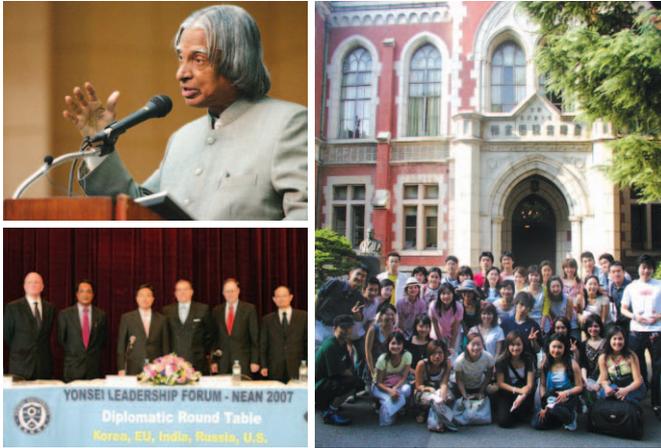
연세대학교 리더십개발원은 국내 대학교에서는 처음으로 리더십을 학문적으로 탐구하고 분야별 지도자 육성을 목표로 하는 전문교육기관입니다.

<프로그램>

리더십 특별강연/리더십 워크샵/사회봉사 프로그램/인턴십 프로그램/전국대학생 토론대회/리더십 캠프/연세-게이오-릿교 리더십 포럼/대학생 동북아 네트워크(NEAN)/중국연수 프로그램/국제모의유엔대회/리더십 국제문화연수

그 중, 리더십특별강연에서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前 대통령, 김수환 추기경, 고건 前 국무총리, 박근혜 국회의원, Oscar Arias Sanchez 前 코스타리카 대통령(1987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Donald J. Johnston OECD 사무총장, Gunter Blobel 박사(1999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 Lee C. Bollinger 컬럼비아대학 총장 등 총 33차례 34명의 연사들이 초청되었다.

“연세 리더십 포럼, 동북아시아네트워크 NEAN 2007”



우리대학교 리더십개발원 주관, 외교통상부 후원으로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열어 나갈 젊은이들의 축제인 연세 리더십 포럼 '동북아시아네트워크 NEAN 2007'이 2월 5일부터 10일까지 5박 6일간 열렸다.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된 대학생 동북아 네트워크 NEAN(North-East Asian Network)은 이제 동북아 지역에서 가장 주목받는 포럼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NEAN 2007 포럼은 '동북아시아의 통합'이라는 대주제 아래 정치/안보, 경제/산업, 문화 및 신기술(이동통신)로 이뤄진 네 개의 분과로 진행되었고 총 150여 명에 달하는 동북아시아 관련 전문가와 초청연사, 그리고 한국(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KAIST, 포항공대, 이화여대), 중국(베이징대, 칭화대, 푸단대), 일본(게이오대, 와세다대, 릿츠메이칸대), 홍콩의 홍콩대학의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진행되었다.

연세자원봉사단 <http://love.yonsei.ac.kr>

연세자원봉사단은 우리 대학교의 건학 이념인 '진리'와 '자유'의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대학의 우수한 인력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할 수 있도록 발족되었습니다.

최근 연세자원봉사단에서 발족한 연세해비타트(연협)는 Habitat for Humanity라는 NGO 단체 산하의 대학 동아리로 지난 3월 15일에 창단식을 가졌다. 집이 없는 영세민들을 위해서 사랑의 집짓기 운동에 참여하며 주요 봉사활동 지역은 태백이 될 예정이다. 현재 6개 단과대학 소속의 00학번부터 07학번까지 159명의 다양한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다.



연세인이여! 세계를 누벼라

연세대학교는 한국의 명문사학을 뛰어 넘어 세계 속의 연세가 되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제 연세인들은 한국을 이끌어 갈 리더일 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해 꿈을 펼칠 세계 속의 리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연세인들을 세계적인 인재로 자라나게 할까요? 세계를 배우는 연세인의 특권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교환학생

교환학생은 학생 교환 협정이 체결된 외국대학(2007년 현재, 57개국 533개 대학)에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학점 취득을 목적으로 파견되어 학업을 계속하면서, 상대국의 언어, 문화 등을 배우고 돌아와 본교에서 학점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외국 대학의 독특한 환경 속에서 외국인들과 함께 강의를 듣고 교류함으로써 사고의 폭과 인적 교류를 넓힐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06학년도 2학기를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있는 Erasmus University Rotterdam에서 보냈습니다. 대도시인 서울을 떠나 한가로운 로테르담에서 보낸 시간들은 제 대학생활의 낭만한과도 같았습니다. 친절한 사람들과 한적한 도시 분위기,

그리고 주변 나라를 돌면서 했던 유럽배낭여행 경험은 저에게 여유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 여유 속에서 제 인생의 목표를 다시 생각하고 인생의 방향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도 있었구요. 연세대학교에서의 생활과는 차원이 다른, 스스로 노력했기에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김경희(경영학과, 04)

SAP(Study Abroad Program)

SAP도 해외대학 학점취득 제도로써 외국 대학에서 자기부담으로 수학과 우리 대학에서 학점을 인정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교환학생 제도보다 많은 학생을 파견할 수 있으며 등록금은 해당 학교에 납부하게 됩니다.

VSP(Visiting Student Program)

VSP는 해외 우수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일정기간 동안 파견되어 학기와 학점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교와 파견대학 두 곳에 모두 수업료를 납부하지만 본교 등록금의 일부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파견대학에 저렴한 수업료 납부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Global Internship Program

이 외에도 국제 비즈니스 실무 경험, 어학능력 향상 및 외국문화 체험을 통해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연세대학교 글로벌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마련된 Global Internship Program이 있습니다. 급변하는 기업 환경을 직접 학생의 신분으로 체험함으로써 앞으로의 학업 계획과 졸업 이후의 경력 설계에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연세 속의 작은 세계, Global Lounge

<http://globalounge.yonsei.ac.kr>



학생회관에는 200여평의 글로벌 라운지가 있습니다. 글로벌 라운지에서는 CNN, BBC, NHK와 같은 15개국의 위성방송이 상시 수신이 되고 있으며, 무선 인터넷 서비스 및 세미나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내의 문화 교류의 중추로 자리잡고 있으며, 글로벌 라운지 내에서는 대부분 영어만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라운지 내에는 학생들의 자치 단체인 Yonsei Global과 Mentors Club이 있어서 외국 교환 학생들과 재학생과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Yonsei Global

<http://yonseiglobal.yonsei.ac.kr>



연세 글로벌은 학생 기구로서 2003년 글로벌 라운지의 개관과 함께 총장직속기구로 출발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세 글로벌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마련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글로벌 마인드를 고양시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세 글로벌의 다양한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Language Exchange(LE) : LE는 우리 학교 재학생과 외국인 교환 학생들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각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교환하고, 나아가 서로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을 한층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Global Angel(GA) : GA프로그램은 연세대학교 재학생과 국제학생들에게 지체 장애 아동이나 저소득층 혹은 결손 가정 아동들을 돌 볼 수 있는 봉사의 기회를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Journal Club(JC)** : JC는 한 학기동안 우리 학교 학생과 교환 학생이



상호 협력하여 영문 저널을 제작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영어 글쓰기 실력 배양은 물론 외국인 교환 학생들과의 친목을 다집니다.

■ **Korean Culture Experience(KC)** : KC는 교내 동아리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국제학생들에게 좀 더 깊은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리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Brazil Day** : 연세 글로벌은 매 학기 각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Global Day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기에는 브라질을 주제로 Global Day를 개최합니다. 정열적인 카니발부터 아마존의 광대함까지, 'Brazil Day'에서는 천의 얼굴을 가진 브라질의 문화를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버디 프로그램은 외국 학생들과 일반 연세대학교 재학생들의 교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 학생들과 교환학생들이 1대 1로 맺어집니다. 이 제도는 서로의 문화 교류에도 많은 도움이 될 뿐더러 멘토스 클럽에서 주최하는 많은 이벤트와 활동을 통해서 서로의 우정을 쌓아가고 좋은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 **외국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 **Buddy's Night** : Buddy's night는 멘토스 클럽에서 주최하는 파티입니다. 이 파티는 Buddy가 된 모든 외국 교환학생과 연세대학교 재학생을 위한 파티입니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재미있는 파티와 다과가 준비되어 있어서 서로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 **Halloween Party** : 매년 10월 31일 경이 되면 할로윈 파티를 개최합니다. 할로윈 파티는 학교 내에서 할 수도 있고, 외부의 장소를 대여해서 하기도 합니다. 전통복장 콘테스트, 호박 조각, 댄스 파티 등으로 이루어지며 한국에서 신나는 외국의 할로윈 데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 **Tour** : 멘토스 클럽에서는 외국 교환 학생들이 한국의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야유회나 여행을 준비합니다. 한국 전통 마을, 전쟁기념관, 대장금 테마파크와 같이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장소들을 함께 방문합니다.

Mentors Club

<http://www.mentorsclub.org>



멘토스 클럽은 2002년 설립된 조직으로 국제 교환학생들의 성공적인 한국 생활 적응과 그들이 연세대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교환학생들과 연세대학교 재학생들의 교류를 활성화 시켜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400명 이상의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학교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Buddy program**



Bridge to the world, Yonsei

■ **한국어 학당 언어 교환 프로그램** :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의 한국어 학당에서는 한국어학당을 다니고 있는 외국 학생들과 연세대학교 재학생을 연결해 주어 서로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의 언어 교환을 원하는 연세대학교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일본어,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독일어, 불어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 **언어 특기자들의 무료 외국어 강좌** : 연세대학교 언어 특기자들은 매주 각 언어에 관심있는 모든 연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각 언어마다 난이도 별로 반이 나누어져 있어 원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수준에 따라서 반을 선택해 들어가면 됩니다.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반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어 특기자들은 "Writing Clinic"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연세인을 위한 무료 영작문 클리닉 프로그램입니다.

내 안의 또 다른 나를 찾아!

연세대학교에는 68개 중앙동아리와 160여 개에 이르는 단대 소속 또는 기타동아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연세교육방송국, 연세매지방송국, 연세춘추사, 연원학보사 등은 별도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의 끼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학생살, 동아리! 강의실 밖의 욕구를 동아리 활동에서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내 안의 잠재력을 깨워 줄 연세대의 동아리를 요모조모 살펴봅시다.



① 하리



② 유포니아



③ So What

[중앙동아리]

구분	동아리	활동
공연 예술	국악연구회	전통국악 계승, 정기 연주회
	극예술연구회	연극 연구 및 공연
	GLEE CLUB	남성합창단(정기 연주회)
	늘품	미디어 연구, 영상 제작 및 행사 기획
	손말누리	수화 기초반 교육 및 홍보, 정기공연
	아브나트 혼성합창단	정기 연주회, 뮤직 캠프
	오르페우스	클래식 기타 연주, 정기 연주회
	울림터	학내 건강한 노래 보급 및 거리 공연
	유포니아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풍물패 때	풍물 및 민요 연주
	춤패탈	탈춤 연구 및 보급
	폴로네이즈	팬 플루트 연주, 정기 연주회
	하리	춤 동아리, 정기 공연 : 5월 11일
	하모니	고전 음악 감상
	JAZZ FEEL	재즈 댄스의 대중화
	MAY	전자음악 연구 및 공연
RYU	하나된 연세 힙합 R.Y.U to the Top	
So What	올바른 재즈문화 전파	
교양	관설차회	무료 시음회, 다도 시연회, 일일 찻집
	기우회	바둑 보급, 승급 대회 및 교류전
	다살이살판	수지침 보급, 여름 농활, 의료 활동 등
	IYC	외국인 유학생과의 교류
	유스호스텔	건강한 여행 문화 창달, 주말, 정기 여행
	RRC	건강한 레크리에이션 보급, 하계 캠프
	아마추어천문회	천체 관측 및 연구
	YARRA	아마추어 무선 통신 HAM
	컴퓨터 클럽	컴퓨터 기술 습득, 전시회, 경진대회
	사회 활동	게르니카
녹색회		자연보호운동
로타랙트		정기 봉사, 연합 지구 활동, 농촌 활동
산하사랑		역사기행 및 건전한 기행 문화 보급
유네스코학생회		시사 문제, 연사, 경제, 철학 연구
국제연합학생회		국제 문제에 대한 지식 보급, 세미나
연세적십자회		세미나와 봉사 활동

구분	동아리	활동
언어 관련	한글물결	우리말 바로 알기, '자유게시판'운영
	에스페란토회	에스페란토어 연구 및 보급
	방송영어 연구회	AFKN 청취 훈련, 모의 방송제
	영어 동우회	영어실력 향상, 영어연극
종교 활동	뉴맨 가톨릭 학생회	성서 공부, 봉사 활동
	불교학생회	불교 연구 보급, 연등 행사 및 수련회
	아가페	기독교 전파 및 봉사 활동, 성경 공부
	연원회	원불교 전파
	한국기독교학생회	캠퍼스 복음회, 기도회 및 정기 예배
	총기독교학생회	기독교 선교, 사회화된 신앙운동
창작 예술	중산도 학생회	동양철학 및 중산사상 연구, 수행
	연영회	사진 기술 연구
	영화패 프로메테우스	영화 감상 및 8mm 영화 제작
	화우회	아마추어 미술 동아리, 정기 미전
체육 활동	만화사랑	대학 만화 보급
	서우회	서예 연구, 정기 전시회
	연세문학회	문학 창작 훈련, 정기 시화전, 문학제
	공과오랜친구들	농구, 정기 연습과 농구 시합
학술	기천문	전통 무예 '기천의 연마와 보급
	물사랑	아마추어 수영
	산악회	산악 등반 연구, 정기 산행
	스킨스쿠버	다이빙 교육, 정기 다이빙 투어
	전통무예18기연구회	전통무예 계승 및 보급, 정기 발표회
	요트 연구회	요트 훈련
	이글스	야구 보급, 정기 연습과 야구 시합
	택견 계승회	전통 문예 택견의 보급
	FC YONSEI	아마추어 축구활동
	목학회	정치 경제학 연구
서베이연구회	여론조사 및 분석	
씨알	신문을 통한 세상 읽기	
열음	교육 문제 연구, 인권운동 사랑방	
자유교양	올바른 가치관 정립, 연합 세미나	
호우회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 답사	
ADCUS	광고에 대한 정보연구	

백상현(경제학과, 05) 현 경원대학 동아리 YIG(Yonsei Investment Group) 회장



Y.I.G를 하게 된 이유 >>> 여러 기업에 대해 분석해 본다는 것이 나름 재미있어 보였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지원을 했었지요. 하지만 활동을 하다 보니 YIG의 활동에 매력을 느끼게 되어 회장이라는 직책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Y.I.G에서 주로 하는 활동은 >>> YIG는 말 그대로 투자를 하는 동아리입니다. 여기서 투자는 상장 기업들의 가치를 분석하여 저평가된 기업을 매수, 안정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투자일 수도 있고, 다양한 투자 자산들에 대한 광범위한 공부도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활동들을 통하여 회원들은 경제를 읽고, 기업을 읽고, 각종 금융 시장들을 읽을 수 있는 금융-경제 전문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를 위해 YIG는 매주 정기 세션을 갖고 자신의 보유하고 있는, 혹은 자신이 최근 분석한 기업들에 대한 발표와 그에 대한 회원들간의 자유로운 토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세션의 결과를 시장에 적용해 보고자 동아리 자체 펀드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얻은 점 >>> 기업 분석이라는건 단순한 재무적 지식, 혹은 경제학적 지식만 가지고는 불가능한 활동입니다.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재무적 지식과 기업이 처한 시장의 환경을 내다볼 수 있는 경제학적 지식을 기초로, 그 밖에 기업 주가의 과거 데이터를 토대로 그 변동성을 측정할 수 있는 통계학적 지식과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을 이해할 수 있는 공학적 지식 역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전공 지식들과 생활 속에 작은 투자 아이디어들이 모여야 가능하게 되지요. 그렇기에 YIG에서는 사회 경제 전반의 지식들을 모두 연구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동아리 회원들은 기업과 경제를 보는 눈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투자 수익금은 보너스라고 할 수 있겠죠.

예비 연세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 >>> YIG에는 금융업 분야에서 우수 인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투자의 철학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Invest yourself in YIG!!

김선민(기계공학과, 06) 현 중앙 재즈동아리 "So What" 회장



So What을 하게 된 이유 >>> 학내 거리공연을 보고 So what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캠퍼스 내에서 음악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불태우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었죠.

So What에서 주로 하는 활동은 >>> 작년 한해 So What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먼저 음악적으로는, 아마추어 연주자로서는 쉽지 않은 800명 가까운 관객 앞에서의 두시간 동안의 공연이라는 감동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종각 빈디&루니스 앞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거리공연도 했고 고려대학교 관악합주부 "윈즈 앙상블"과 홍대앞 유명한 재즈클럽 "Evans"에서 빅밴드 협연도 했었죠. 또, 음악 외적으로는 저의 전공 선배님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전공, 학업 또 더 나아가 저의 미래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도 나누었구요. 동아리를 통해 다양한 사회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예비 연세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 >>> 대학입시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고등학생 여러분! 학원과 학교에서 공부만 하는게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대학에 오면 여러분의 꿈을 펼칠 무궁무진한 기회와 또 그것을 도와주는 수많은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기다림이 더욱 멋진 대학생활을 만드는 기회가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2008년에는 연세대학교 캠퍼스에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화이팅입니다!

[단과대학 소속 동아리]

구분	동아리
문과대학	시월(밴드), 우리사회바로보기반(언론비평), 한울눈(영화), 모반(여성), 사학연구회, 발버둥(울동패), 연인(연극), 한울두레패(풍물패) 등
교육과학대학	집현전(‘연세교육’ 발간), 예람(기독교), 돌움(교육실천)
상경대학/경영대학	MARP(마케팅), Yonsei Investment Group, 상크모(상대 크리스천 모임), GMT(세계경영트랙) 등
사회과학대학	시공(정치경제학회), PROS(역사학회), 서릿발(토론), YAC(광고), Kino(영화), CUE(영상), 터얼(풍물), 어울림(노래패), 사과대극회, 늘푸른소리(민중가요) 등
법과대학	10개의 학회(국제법학회,노동법학회 등), 천둥(풍물패) 등
이과대학	청년(민중가요노래패), 매슬리츠(야구동아리), 이학(교지편집동아리), 가이아(밴드), 공사랑(농구), 한얼(풍물패), 이연극회, 라다키(환경), 아해누리(자원봉사) 등
공과대학	메카(자동차), 메두사(록음악), 연세로켓연구회, 신명(풍물), 장강(사회과학), 설천(노래패), 공대극회 등
생활과학대학	HIDDEN(주거환경), Hecs(춤) 등

연세대학교에는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하여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동문들도 많이 있지만,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학교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는 재학생들도 많습니다. 항상 끊임없이 노력하며 세계를 향해 힘차게 날개짓하고 꿈꾸는 연세인들! 그 중 한명인 '표철민' 학생을 만나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당신의 자랑스러운 이름 바로, '연세인' 입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경영학부에 재학중인 04학번 표철민입니다. 저는 학생이기도 하지만 벤처기업의 사장이기도 합니다. 저는 "위자드웍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자드웍스 사무실은 연세대학교 공학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저와 12명의 직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위자드웍스"에서는 "위자드닷컴(www.wzd.com)"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은 원하는 기능이나 콘텐츠만 모아 '나만의 시작페이지'를 만들어주는 서비스입니다. 즉 사용자 개개인 이 자신만의 포털사이트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웹2.0 서비스'를 꿈꾸는 때면 꼭 언급되는 서비스이기도 하죠. 현재 약 3만명의 회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연세대학교에서 사업을 하게 되셨죠?

연세대학교는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학교로 유명하죠. 연세대 내에는 창업지원센터가 있어서 학생들이 뜻을 가지고 자신이 스스로 창업을 해 보고 싶다면 그 학생들에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창업센터에 입주하려면 일정 기간의 지원기간 동안 신청을 해서 교수님들의 심사를 통해 합격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2년 반 동안의 보육기간동안 기자재와 공과금을 일체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학교를 다니면서도 저만의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로필을 보니 이중전공을 하고 계시는 데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사실 처음부터 신문방송학과를 지원하긴 했었어요. 연대 신문방송학과가 사회에서도 유명하잖아요. 많은 동문들께서 이미 여러 언론사에 진출해 계시기고 하고요. 하지만 연세대학교에 들어와서 이중전공제도를 알게 되고 나서는 다른 분야의 공부도 해 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이중전공 제도는 계열간의 이동을 자유롭고, 수월하게 해줍니다. 사실 학부만 졸업해서는 전공을 살리기 어렵잖아요. 하지만 이중전공을 하게 되면 당장 그것을 응용하지는 못하더라도 두 전공의 시각에서 하나의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워 주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을 갖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사업을 이룬 나이에 시작하다 보니 이론적인 기초가 부족해서 그것을 키우기 위해 경영학과를 선택하게 되었고, 지금은 신문방송학과와 경영학과가 묘한 시너지 효과를 내어서 제가 하는 일에 모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신문방송학과, 경영학과, 04

표철민



일을 하시느라 바쁘셨을 텐데 다른 학교 활동은 무엇을 하셨나요?

제가 워낙 "연대 빠돌이" 이기 때문에 아무리 일이 바빠도 학교를 떠날 수는 없었어요. 학교를 다니다가 연대의 동아리 조직이 참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동아리들을 많이 가입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리더스 클럽도 하고, 공대 동아리인 연세아이디어연구회에 들어서 활동을 했죠. 저와 다른 계열의 사람들을 만나보니 분위기도 달라서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내 가까워지고 제 발전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저는 연세영상제작 센터인 YVAC 활동을 1, 2학년 내내 했었는데요, 여태까지 대학생활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은 열정을 쏟았던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록 공신력은 없지만 제가 카메라 들고다니며 이것 저것 찍는 것을 좋아하는 데 제가 YVAC 활동을 하면서 저만의 영화 "Smoking Gun"도 찍어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NEAN 조직 위원회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잠깐 들려주세요.

2006년에 NEAN 조직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 거기서 PR 매니저로 활동을 했는데, 그 때 경험은 제가 인생에 다시는 겪을 수 없는 뜻깊은 시간들일 거예요. 정말 좋은 사람들도 많고 열 번을 생각해도 연세인들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고 생각해요. 인도 대통령을 비롯한 유명인사와 300명에 이르는 각국의 참가자들을 모아서 관리하고 프로그램 전반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뿌듯해요. 국내 유일의 대학교가 호스트하는 대규모 국제행사인데 그것을 바로 제가 다니는 연세대학교에서 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저는 가슴이 벅차 오릅니다.

연세대학교를 무척이나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연세대학교에서 들었던 수업 중에 가장 좋았던 수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저는 서정우 교수님의 언론학 개론이 가장 인상에 깊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지루하기도 하다고 하지만 저는 고령에 나이에도 불구하고 1학년에 맞는 강의를 진행하실 수 있다는 점이 참 기억에 남아요. 사실 70대의 노교수가 80년대에 태어난 저희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강의한다는 것이 쉬운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수업을 들으면 학생들이 재미있어서 중간에 막 웃기도 하고 그래요. 언론학도로서 제가 그 분의 수업을 들을 수 있었던 건 정말 영광이었어요. 그 밖에도 참 제가 기억에 남는 수업은 많아요. 연세대학교 교수님들은 타 대학에 비해서 유머 감각도 많으시고 참 존경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저도 제가 연세대학교 내에만 있을 때는 몰랐지만 사회에 나가서 보면 각 업계에서 칭송받는 분들이 연대의 교수님으로 많이 계시요. 제가 그런 분들의 수업을 들을 수 있더니... 생각만 해도 뿌듯하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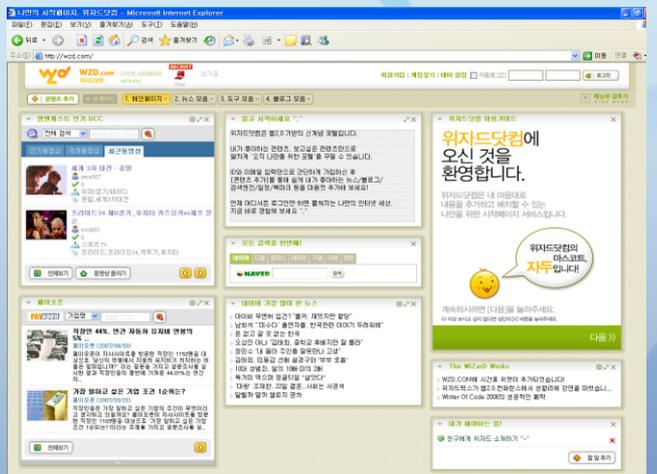
연세대학교에서 만난 사람 중에서 꼭 한 명을 꼽으라면 누가 있을까요?

저는 단연 저의 창업 멤버인 친구를 꼽을 것입니다. 이 친구는 컴퓨터공학과 04학번인 친구입니다. 연대에 와서 서로 특기자로 만났어요. 그 친구는 정보특기자 였거든요. 특기자들은 그들만의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만나서 급속도로 친해졌어요. 저희는 사실 예전에 신문기사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같은 지면에 저는 인터넷을 이용해 사업을 하는 중학생 사업장으로, 그 친구는 바이러스 발명으로 나왔거든요. 그 친구가 그 때 이후 똥통 훈이 나고서는 현재는 "이지클린"을 개발하여 그것을 운영중입니다. 제가 창업을 시작 할 때는 저와 그 친구 단 둘이서 시작을 했고, 지금도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내에는 참 다양하고 특이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와 그 친구도 연세대가 맺어준 인연이지요.

그럼 마지막으로 예비 연세인들에게 한 마디 해 주세요.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Follower가 되려면 다른 대학을 가고, Leader가 되고 싶다면 연세대학교로 오라는 말입니다. 연세대학교를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역시 "Leadership"입니다. 연세대학교는 많은 재학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개인을 각자의 분야에서 리더로 활동할 수 있도록 키워줍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보면 각계의 리더들은 거의 다 연세대 동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둘째로는 꿈을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2, 고3 학생들은 이것 저것 해보다 안되면 포기를 쉽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만약 포기한다면 저는 공부만 포기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꿈이 있다면 꼭 그것을 키워셨으면 해요. 어떤 분야에서 즐길 수 있을 때 다른 나머지 일도 술술 풀리기 마련이거든요. 대학에 오면 모든 것이 저절로 되겠지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대학이 여러분의 최종 목표는 아니잖아요? 더 큰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되세요!!



입학전형 안내

Contents | 27 전형일정 28 서울캠퍼스 입학전형 안내 35 원주캠퍼스 입학전형 안내 40 FAQ 42 연세대학교 논술시험 안내 50 연세대학교 장학제도 안내

연세대학교 2008학년도 입학 전형의 특징

-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의 등급화에 따른 변화에도 불구하고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전체적인 전형의 틀은 2007년도와 일관성을 유지하였음
- 다양한 전형요소(학생부, 논술, 면접, 수능) 중 한 가지 분야가 우수해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전형유형을 다양화함
 - [학생부] 교과성적우수자 전형(수시 2-1차)
 - [수능] 일반우수자 전형(수시), 일반 전형(정시)의 우선선발
 - [면접] 면접 전형(수시 2-1차)
 - [논술] 논술 전형(수시 2-2차)

연세대학교 2008학년도 입학 전형 주요 사항

1. 모집 시기

- [수시 1] 일반우수자 전형 폐지, 언더우드 국제대학 전형 유지
- [수시 2] 2-1차 모집과 2-2차 모집으로 구분(2-1차, 2-2차 모집에 복수 지원 가능함)

2. 전형 신설 및 개편

- [교과성적우수자 전형]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과성적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전형 신설
- [특기자 전형] 기존의 '특기자 및 특수재능보유자 전형'을 개편하여 인문계는 전국 규모의 문학상 또는 신춘문에 당선자를, 자연계는 수학, 과학 분야의 우수자를 선발함
- [국제학부 전형] 원주캠퍼스에 국제학부(East Asia International College, EIC)전형 신설

3. 우선선발 전형 방법

- [수시 모집] 서울캠퍼스 일반우수자 전형은 수능에서 최저학력기준과 계열별 기준을 만족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모집인원의 50%를 학생부(20%)와 논술(80%)로 우선 선발함
- [정시 모집] 정시모집은 내신과 수능, 논술을 모두 준비해야 하는 수험생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모집인원의 50%를 수능성적만으로 우선선발함

4. 정시모집

- 서울캠퍼스는 학생부와 수능을 주요 전형 요소로 활용하고 논술을 보조적으로 활용할 예정임
- 서울캠퍼스 정시모집 『나』군의 공학계열 전형은 현재와 같이 논술을 실시하지 않고 학생부와 수능만으로 선발함
- 원주캠퍼스는 학생부와 수능으로 학생을 선발하되 의예과는 논술도 전형요소로 활용할 예정임

5. 사회공헌 및 통합을 고려한 전형 유지

- 수시모집의 연세한마음장학 전형(서울), 사회기여자 및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지역고교우수자 전형(원주)과 정시모집의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실업계고교출신자 특별전형을 유지함

전형이정 L O R O

■ 전형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모집요강에서 다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수시 1학기 모집

일정		내용
7월	12일(목)~16일(월)	원서접수
8월	9일(목)	UIC 면접 대상자 발표
	18일(토)	UIC 면접구술시험
	23일(목)	합격자 발표
9월	3일(월)~4일(화)	합격자 등록

수시 2학기 모집

일정		내용
9월	7일(금)~11일(화)	원서접수
10월	9일(화)	[수시 2-1차] 면접 대상자 발표
	12일(금)~13일(토)	[수시 2-1차] 면접구술시험
	18일(목)	[수시 2-1차] 합격자(무조건/조건부) 발표
11월	15일(목)	수능시험
	24일(토)	[수시 2-2차] 논술시험, UIC 면접구술시험
12월	12일(수)	수능시험 성적 통지일
	16일(일)	[수시 2-1차] 조건부 합격자 최종 발표 [수시 2-2차] 합격자 발표
	17일(월)~18일(화)	합격자 등록

정시 모집

일정		내용
12월	20일(목)~24일(월)	원서접수
2008년 1월	7일(월)	우선선발 합격자 발표
	10일(목)	논술시험
	28일(월)	합격자 발표
2월	4일(월)~5일(화)	합격자 등록

서울캠퍼스 입학전형 안내

■ 전형관련 세부 사항과 정확한 내용은 모집요강에서 최종 확인하기 바랍니다.

전형별 모집인원

시기	전형	모집인원	비고
수시 1	언더우드 국제대학 전형	70명	
수시 2-1차	교과성적우수자 전형	250명	신설
	조기졸업자 전형	250명	
	글로벌리더 전형	250명	
	특기자 전형	150명	개편
	음악대학 일반우수자 전형	7명	
	음악특기자 전형	2명	
	체육특기자 전형	50명	
수시 2-2차	일반우수자 전형	918명	
	사회기여자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70명	
	연세한마음장학 전형	80명	
	언더우드 국제대학 전형	25명	
정시	일반 전형	1,372명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139명	정원 외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15명	정원 외
	실업계고교출신자 특별전형	69명	정원 외

※ 모집인원은 추후 변경가능하니 모집요강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수시 1학기 모집

1. 언더우드 국제대학 전형

지원자격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자(2년 이내), 졸업예정자(3학년) 또는 국내검정고시합격자(2005년 4월 이후)로서 입학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응시한 공인영어성적을 제출할 수 있는 자	
모집인원	70명(인문사회계열 : 50명, 공학계열 : 20명)	
전형요소	서류	영어면접구술시험
	60%	40%
전형방법	1단계 : 서류평가로 영어면접구술시험 대상자 선발 2단계 : 서류평가와 영어면접구술시험으로 합격자 선발	
최저학력기준	없음	

※ 서류평가 : 교과성적, 학생부비교과영역, 추천서, 자기소개서, 기타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수시 2-1차 모집

1. 교과성적우수자 전형

지원자격	국내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2008년 2월 졸업예정자)		
모집인원	250명		
전형요소	학생부		면접구술시험
	교과	비교과	
	80%	10%	10%
전형방법	1단계 : 학생부(교과, 비교과)로 면접구술시험 대상자 선발 2단계 : 학생부와 면접구술시험으로 합격자 선발		
최저학력기준	[인 문 사 회] 언어, 수리(나), 외국어, 사회탐구 영역 중 3개 이상 2등급 이내 [자 연]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학탐구 영역 중 2개 이상 2등급 이내 (단, 수리(가) 또는 과학탐구 포함) [의예/치의예]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학탐구 영역 중 3개 이상 1등급 이내		

2. 조기졸업자 전형

지원자격	국내 일반계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2008년 2월 졸업 예정자)으로 2학년 1학기까지 수학과 과학 교과의 이수단위 합계가 43단위 이상인 자		
모집인원	250명		
전형요소	교과	서류	심층면접구술시험
	40%	30%	30%
전형방법	1단계 : 교과와 서류평가로 심층면접구술시험 대상자 선발 2단계 : 교과, 서류평가 및 심층면접구술시험으로 합격자 선발		
최저학력기준	없음		

※ 서류평가 : 추천서, 자기소개서, 학생부비교과영역, 기타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3. 글로벌리더 전형

지원자격	국내(일반계)·국외 고등학교 2008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후 2년 이내인 졸업생으로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1. 국내 정규 고등학교에서 외국어 및 외국어에 관한 교과 또는 국제전문교과를 58단위 이상 이수한 자 2. 입학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응시한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언어(한국어 제외)에 관한 공인성적을 제출할 수 있는 자 3. 2과목 이상의 AP STUDENT GRADE REPORT(College board 발행)와 입학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응시한 공인영어성적을 제출할 수 있는 자		
모집인원	250명		
전형요소	교과	서류	심층면접구술시험
	40%	30%	30%
전형방법	1단계 : 교과와 서류평가로 심층면접구술시험 대상자 선발 2단계 : 교과, 서류평가 및 심층면접구술시험으로 합격자 선발		
최저학력기준	없음		

※ 서류평가 : 추천서, 자기소개서, 학생부비교과영역, 기타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4. 특기자 전형

지원자격	국내·외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2008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후 2년 이내인 졸업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인문사회계] 가. 전국 규모의 주요 문학상, 신춘문에 입상자 나. 고등학교 재학 중 국제 올림피아드 참가자 또는 국내 올림피아드 입상자 [자연계] 가. 수학과 과학 관련 교과를 35단위 이상 이수하고, 평균 등급이 모두 2.5등급 이내인 자(국내고) 나. 수학 또는 과학 관련 전문교과가 15단위 이상인 자(국내고) 다. 재학 중 국제 올림피아드 참가자 또는 국내 올림피아드 입상자	
모집인원	150명(인문 : 25명, 자연 : 125명)	
전형요소	서류	심층면접구술시험
	50%	50%
전형방법	1단계 : 서류평가로 심층면접구술시험 대상자 선발 2단계 : 서류평가와 심층면접구술시험으로 합격자 선발	
최저학력기준	■ 인문사회 : 전체 적용 ■ 자연 : 부분 적용 (최저학력기준은 일반우수자 전형과 동일함)	

※ 서류평가 : 교과성적, 학생부비교과영역, 추천서, 자기소개서, 기타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5. 음악대학 일반우수자 전형

지원자격	국내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2008년 2월 졸업예정자), 졸업자 또는 국내검정고시합격자
모집인원	7명
전형요소	실기시험
전형방법	1단계 : 1차 실기시험 결과로 2차 실기시험 대상자 선발 2단계 : 2차 실기시험 성적으로 합격자 선발
최저학력기준	없음

※ 기악과 현악전공만 선발

6. 음악특기자 전형

지원자격	국내 고등학교 2008년 2월 졸업예정자, 졸업 후 2년 이내인 졸업자 또는 국내검정고시합격자(2005년 4월 이후)로서 동아음악 콩쿨 또는 중앙음악 콩쿨 입상자	
모집인원	2명	
전형요소	수상경력	서류
	70%	30%
전형방법	일괄합산 전형	
최저학력기준	없음	

※ 서류평가 : 학생부비교과영역, 추천서, 자기소개서, 기타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7. 체육특기자 전형

지원자격	국내 고등학교 2008년 2월 졸업예정자, 졸업자 또는 국내검정고시합격자(개인종목)로서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단체] 고등학교 재학 중 전국·국제 규모 대회에서 16강 이내에 입상한 팀의 선수 또는 대한체육회에서 우수선수로 추천한 자 [개인] 전국·국제 규모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자	
모집인원	50명	
전형요소	서류, 면접	
전형방법	1단계 : 서류평가로 면접구술시험 대상자 선발 2단계 : 서류평가와 면접구술시험으로 합격자 선발	
최저학력기준	없음	

※ 서류평가 : 수상경력, 추천서, 자기소개서, 학생부, 기타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수시 2-2차 모집

1. 일반우수자 전형

지원자격	국내·외 고등학교 2008년 2월 졸업예정자, 졸업자 또는 국내검정고시 합격자		
모집인원	918명		
전형요소	학생부		논술
	교과	비교과	
	40%	10%	50%
전형방법	일괄합산 전형		
최저학력기준	[인 문 사 회] 언어, 수리(나), 외국어, 사회탐구 영역 중 3개 이상 2등급 이내 [자 연]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학탐구 영역 중 2개 이상 2등급 이내 (단, 수리(가) 또는 과학탐구 포함) [의예/치의예]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학탐구 영역 중 3개 이상 1등급 이내		

◎ 일반우수자 전형 우선선발

최저학력기준과 계열별 우선 선발 기준을 만족하는 지원자 중에서 모집인원의 50% 우선 선발(의예/치의예 제외)

우선선발기준	[인문] 언어영역과 외국어 영역 모두 1등급 [사회] 수리(나)영역과 외국어 영역 모두 1등급 [자연] 수리(가)영역과 과탐 중 하나는 1등급 다른 하나는 2등급 이내		
우선선발 전형요소	학생부		논술
	교과	비교과	
	16%	4%	80%

2. 사회기여자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지원자격	국내·외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2008년 2월 졸업예정자), 졸업자 또는 국내검정고시합격자로서 다음 해당 분야의 요건을 충족한 자 -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국위선양자, 벽·오지 근무 일반·교육 공무원(사립교원 제외), 직업군인, 국·내외 벽·오지 근무 선교사, 교역자 및 의료봉사자, 환경미화원(구청 소속 별정직 공무원)		
모집인원	70명		
전형요소	학생부		논술
	교과	비교과	
	40%	10%	50%
전형방법	일괄합산 전형		
최저학력기준	[인 문 사 회] 언어, 수리(나), 외국어, 사회탐구 영역 중 3개 이상 2등급 이내 [자 연]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학탐구 영역 중 2개 이상 2등급 이내 (단, 수리(가) 또는 과학탐구 포함) [의예/치의예]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학탐구 영역 중 3개 이상 1등급 이내		

3. 연세한마음 장학전형

지원자격	국내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2008년 2월 졸업예정자), 졸업자 또는 국내검정고시합격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자		
모집인원	80명		
전형요소	학생부		논술
	교과	비교과	
	40%	10%	50%
전형방법	일괄합산 전형		
최저학력기준	[인 문 사 회] 언어, 수리(나), 외국어, 사회탐구 영역 중 3개 이상 2등급 이내 [자 연]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학탐구 영역 중 2개 이상 2등급 이내 (단, 수리(가) 또는 과학탐구 포함) [의예/치의예]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학탐구 영역 중 3개 이상 1등급 이내		

4. 언더우드 국제대학 전형

지원자격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자(2년 이내), 졸업예정자 또는 국내검정고시합격자(2005년 4월 이후)로서 입학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응시한 공인영어성적을 제출할 수 있는 자		
모집인원	25명(인문사회계열 : 10명, 공학계열 : 15명)		
전형요소	서류	영어면접구술시험	
	60%	40%	
전형방법	1단계 : 서류평가로 영어면접구술시험 대상자 선발 2단계 : 서류평가와 영어면접구술시험으로 합격자 선발		
최저학력기준	없음		

※ 서류평가 : 교과성적, 학생부비교과영역, 추천서, 자기소개서, 기타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수시모집 교과성적 반영방법

구분	내용	
반영교과 및 반영방법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관련 과목(단, 조기졸업자 전형에서는 사회 관련 과목 제외) : 과목별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석차백분율을 계산하여 적용	
	위 외의 과목 : 과목별 등급이 9등급인 경우에 한하여 일정 점수 감점	
학년별 반영비율	고등학교 3학년 졸업(예정)자	1학년(20%) + 2학년(40%) + 3학년(40%)
	조기졸업자	1학년 1학기(20%) + 1학년 2학기(40%) + 2학년 1학기(40%)

정시모집

1. 「가」군 일반 전형

1)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구분	학생부			수능	논술
	교과	비교과	출석		
「가」군	40%	5%	5%	40%	10%
「가」군 (우선선발)	-	-	-	100%	-

※ 교과성적 반영방법에 관한 내용은 추후 공지할 예정임

※ 우선선발 : 전 모집단위에서 수능성적으로 모집인원의 50%를 우선 선발(의예과, 치의예과, 예체능계 제외)

2) 정시 모집 수능 반영 영역

구분	반영영역	비고
인문	언어, 수리(나), 외국어, 사회탐구, 제2외국어/한문 ¹⁾	• 사회탐구 : 4과목 응시, 3과목 반영
사회	언어, 수리(나), 외국어, 사회탐구	• 사회탐구 : 4과목 응시, 3과목 반영
자연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학탐구	• 과학탐구 : 과학 I, II(동일과목) + 2과목 (4과목 응시, 3과목 반영)

¹⁾ 인문계열(인문학부, 외국어문학부)에는 제2외국어/한문 영역이 반영됨

※ 수능 반영 영역별 반영 비율 및 점수 배점은 추후 공지할 예정임

2. 「나」군 공학계열 전형

1)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구분	학생부			수능
	교과	비교과	출석	
「나」군 공학계열	20%	-	-	80%
「나」군 공학계열 (우선선발)	-	-	-	100%

※ 우선선발 : 「나」군 공학계열 전 모집단위에서 수능성적으로 모집인원의 50%를 우선 선발함

2) 정시 모집 수능 반영 영역

구분	반영영역	비고
「나」군 공학계열 전형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학탐구	• 과학탐구 : 과학 I, II(동일과목) + 2과목 (4과목 응시, 3과목 반영)

※ 수능 반영 영역별 반영 비율 및 점수 배점은 추후 공지할 예정임

3. 「가」군 체육계열 및 「나」군 음악대학 전형

1) 전형요소

구분	전형요소	비고
「가」군 체육계열 전형	학생부, 수능, 실기시험, 면접	- 모집단위(체육교육학과, 사회체육학과)에 따라 전형요소 및 배점이 다름 - 최저학력기준 : 없음
「나」군 음악대학 전형	학생부, 수능, 실기	- 최저학력기준 : 없음

2) 정시 모집 수능 반영 영역

구분	반영영역	비고
『가』군 체육계열 전형	언어, 수리(가)/(나), 외국어, 사회/과학탐구	• 탐구영역 : 자유선택 2과목
『나』군 음악대학 전형	언어, 외국어	

4. 특별 전형

1)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전형	학생부			수능	논술
	교과	비교과	출석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40%	5%	5%	40%	10%
실업계고교출신자 특별전형	40%	5%	5%	40%	10%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40%	5%	5%	50%	-

※ 전형요소 및 전형요소별 배점 비율은 일반전형에 준하여 적용함

2) 수능 최저학력기준

구분	기준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인 문 사 회] 언어, 수리(나), 외국어, 사회탐구 영역 중 3개 이상 2등급 이내 [자 연]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학탐구 영역 중 2개 이상 2등급 이내(단, 수리(가) 또는 과학탐구 포함) [의예/치의예]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학탐구 영역 중 3개 이상 1등급 이내
실업계고교출신자 특별전형	[인 문 사 회] 언어, 수리(나), 외국어, 사회(직업)탐구 영역 중 3개 이상 2등급 이내 [자 연]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학(직업)탐구 영역 중 2개 이상 2등급 이내(단, 수리(가) 또는 과학탐구 포함)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인 문 사 회] 언어, 수리(나), 외국어, 사회탐구 영역 중 3개 이상 2등급 이내 [자 연]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학탐구 영역 중 2개 이상 2등급 이내(단, 수리(가) 또는 과학탐구 포함) [의예/치의예]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학탐구 영역 중 3개 이상 1등급 이내

※ 실업계고교 출신자 특별전형 지원자는 탐구영역에서 직업탐구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과목 선택은 자유선택 3과목임

원주캠퍼스 입학전형 안내

■ 전형관련 세부 사항과 정확한 내용은 모집요강에서 최종 확인하기 바랍니다.

전형별 모집인원

시기	전형	모집인원	비고
수시 2-1차	교과성적우수자 전형	306명	신설
	조기졸업자 전형	약간명	
	영어능력우수자 전형	60명	
	특기자 전형	66명	개편
	지역고교우수자 전형		38명
		12명	광역자치단체장 추천
수시 2-2차	일반우수자 전형	458명	
	사회기여자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26명	
	국제학부(EOC) 전형	25명	신설
정시	일반 전형	538명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61명	정원 외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5명	정원 외
	실업계고교졸신자 특별전형	45명	정원 외

※ 모집인원은 추후 변경가능하니 모집요강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수시 2-1차 모집

1. 교과성적우수자 전형

지원자격	국내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2008년 2월 졸업예정자)		
모집인원	306명		
전형요소	학생부		면접구술시험
	교과	비교과	
	80%	10%	10%
전형방법	1단계 : 학생부(교과, 비교과)로 면접구술시험 대상자 선발 2단계 : 학생부와 면접구술시험으로 합격자 선발		
최저학력기준	적용, 38쪽 참고		

2. 조기졸업자 전형

지원자격	국내 일반계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2008년 2월 졸업 예정자)으로 2학년 1학기까지 수학과 과학 교과의 이수단위 합계가 43단위 이상인 자		
모집인원	약간명		
전형요소	교과	서류	심층면접구술시험
	40%	30%	30%
전형방법	1단계 : 교과와 서류평가로 심층면접구술시험 대상자 선발 2단계 : 교과, 서류평가 및 심층면접구술시험으로 합격자 선발		
최저학력기준	없음		

※ 서류평가 : 추천서, 자기소개서, 학생부비교과영역, 기타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3. 영어능력우수자 전형

지원자격	국내(일반계)·국외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2008년 2월 졸업 예정자) 및 졸업 후 2년 이내인 졸업생으로 공인 영어 시험에서 TOEFL 550점(PBT), 213점(CBT), TOEIC 800점, TEPS 750점 이상의 점수를 하나 이상 취득한 자		
모집인원	60명		
전형요소	교과	서류	영어면접구술시험
	40%	30%	30%
전형방법	1단계 : 교과와 서류평가로 영어면접구술시험 대상자 선발 2단계 : 교과, 서류평가 및 영어면접구술시험으로 합격자 선발		
최저학력기준	없음		

※ 서류평가 : 추천서, 자기소개서, 학생부비교과영역, 기타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4. 특기자 전형

지원자격	국내·외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2008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후 2년 이내인 졸업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인문사회계] 가. 전국 규모의 주요 문학상, 신춘문예 입상자 나. 전국 규모의 문화예술대회 수상자 다. 재학 중 국제 올림피아드 참가자 또는 국내 올림피아드 입상자 [자연계] 가. 수학과 과학 관련 교과를 35단위 이상 이수하고, 평균 등급이 모두 3.5등급 이내인 자(국내고) 나. 수학 또는 과학 관련 전문교과가 15단위 이상인 자(국내고) 다. 재학 중 국제 올림피아드 참가자 또는 국내 올림피아드 입상자		
모집인원	66명(인문 : 10명, 자연 : 56명)		
전형요소	서류	심층면접구술시험	
	50%	50%	
전형방법	1단계 : 서류평가로 심층면접구술시험 대상자 선발 2단계 : 서류평가와 심층면접구술시험으로 합격자 선발		
최저학력기준	■ 인문사회 : 전체 적용 ■ 자연 : 부분 적용 (38쪽 참고)		

※ 서류평가 : 교과성적, 학생부비교과영역, 추천서, 자기소개서, 기타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5. 지역고교우수자 전형

지원자격	[학교장 추천자] 강원도 소재 고등학교(일반계)에 입학하여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3학년 재학생(2008년 2월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 후 2년 이내인 졸업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자 [광역자치단체장 추천자] 강원도 소재 고등학교(일반계)에 입학하여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3학년 재학생(2008년 2월 졸업예정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광역자치단체장 추천을 받은자		
모집인원	학교장 추천자 : 38명, 광역자치단체장 추천자 : 12명		
전형요소	교과	서류	면접구술시험
	40%	30%	30%
전형방법	1단계 : 교과와 서류평가로 면접구술시험 대상자 선발 2단계 : 교과, 서류평가 및 면접구술시험으로 합격자 선발		
최저학력기준	[의예]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학탐구 영역 중 3개 이상 1등급 이내 [기타] 없음		

※ 서류평가 : 추천서, 자기소개서, 학생부비교과영역, 기타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수시 2-2차 모집

1. 일반우수자 전형

지원자격	국내·외 고등학교 2008년 2월 졸업예정자, 졸업자 또는 국내검정고시 합격자		
모집인원	458명		
전형요소	학생부		논술
	교과	비교과	
	40%	10%	50%
전형방법	일괄합산 전형		
최저학력기준	적용, 38쪽 참고		

2. 사회기여자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지원자격	국내·외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2008년 2월 졸업예정자), 졸업자 또는 국내검정고시합격자로서 다음 해당 분야의 요건을 충족한 자 -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국위선양자, 벽·오지 근무 일반·교육 공무원(사립교원제외), 직업군인, 국·내외 벽·오지 근무 선교사, 교역자 및 의료봉사자, 환경미화원(구청 소속 별정직 공무원), 소년소녀가정등록자		
모집인원	26명		
전형요소	학생부		논술
	교과	비교과	
	40%	10%	50%
전형방법	일괄합산 전형		
최저학력기준	적용, 38쪽 참고		

3. 국제학부(EIC) 전형

지원자격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자(2년 이내), 졸업예정자(3학년) 또는 국내검정고시합격자(2005년 4월 이후)로서 입학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응시한 공인영어성적을 제출할 수 있는 자		
모집인원	25명		
전형요소	서류	영어면접구술시험	
	60%	40%	
전형방법	1단계 : 서류평가로 영어면접구술시험 대상자 선발 2단계 : 서류평가와 영어면접구술시험으로 합격자 선발		
최저학력기준	없음		

※ 서류평가 : 교과성적, 학생부비교과영역, 추천서, 자기소개서, 기타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수시모집 최저학력기준 안내

전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성적우수자 전형 일반우수자 전형 사회기여자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인문사회계, 보건계열(인문), 간호학과(인문)] 언어, 수리(나), 외국어, 사회탐구 영역 중 2개 이상 3등급 이내 또는 1개 이상 2등급 이내
	[의공학부, 보건계열(자연), 간호학과(자연)]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학탐구 영역 중 2개 이상 3등급 이내 또는 1개 이상 2등급 이내
	[자연계열, 공학계열(컴퓨터정보통신학부, 환경공학부), 치위생학과]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학탐구 영역 중 1개 이상 3등급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기자 전형 	[의예]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학탐구 영역 중 3개 이상 1등급 이내
	[인문] 언어, 수리(나), 외국어, 사회탐구 영역 중 1개 이상 3등급 이내 [자연] 수리(가) 또는 과학탐구 영역 중 1개 이상 3등급 이내

◎ 수시모집 교과성적 반영방법

반영과과 및 반영방법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관련 과목(단, 조기졸업자 전형에서는 사회 관련 과목 제외) : 과목별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석차백분율을 계산하여 적용 위 외의 과목 : 과목별 등급이 9등급인 경우에 한하여 일정 점수 감점	
학년별 반영비율	고등학교 3학년 졸업(예정)자	1학년(20%) + 2학년(40%) + 3학년(40%)
	조기졸업자	1학년 1학기(20%) + 1학년 2학기(40%) + 2학년 1학기(40%)

정시모집

1. 「가」·「나」군 일반 전형

1)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구분	학생부			수능	논술
	교과	비교과	출석		
「가」군 의예과	40%	5%	5%	40%	10%
「가」군·「나」군	40%	5%	5%	50%	-
「가」군·「나」군 (우선선발)	-	-	-	100%	-

※ 교과성적 반영방법에 관한 내용은 추후 공지할 예정임

※ 우선선발 : 전 모집단위에서 수능성적으로 모집인원의 50%를 우선 선발함(의예과 제외)

2) 정시 모집 수능 반영 영역

구분	반영영역	비고
인문	언어, 외국어, 사회탐구	• 사회탐구 : 3과목 응시, 3과목 반영
사회	언어, 수리(나), 외국어, 사회탐구	• 사회탐구 : 3과목 응시, 3과목 반영
자연	수리(가), 외국어, 과학탐구	• 과학탐구 : 3과목 응시, 3과목 반영
간호(자연)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학탐구	• 과학탐구 : 3과목 응시, 3과목 반영
의예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학탐구	• 과학탐구 : 과학 I, II(동일과목) + 2과목 (4과목 응시, 3과목 반영)

2. 『나』군 디자인학부 전형

1)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구분	학생부			수능	실기
	교과	비교과	출석		
『나』군 디자인학부 (예체능)	20%	2.5%	2.5%	37.5%	37.5%

※ 수능반영 영역 : 언어, 외국어

3. 특별 전형

1)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전형	의 예 의 예 외	학생부			수능	논술
		교과	비교과	출석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의 예	40%	5%	5%	40%	10%
	의 예 외	40%	5%	5%	50%	-
실업계고교출신자 특별전형		40%	5%	5%	50%	-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40%	5%	5%	50%	-

※ 전형요소 및 전형요소별 배점 비율은 일반전형에 준하여 적용함

2) 수능 최저학력기준

전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학생 특별 전형 특수교육대상자 특별 전형 	[인문사회계, 보건계열(인문), 간호학과(인문)] 언어, 수리(나), 외국어, 사회탐구 영역 중 2개 이상 3등급 이내 또는 1개 이상 2등급 이내 [의공학부, 보건계열(자연), 간호학과(자연)]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학탐구 영역 중 2개 이상 3등급 이내 또는 1개 이상 2등급 이내 [자연계열, 공학계열(컴퓨터정보통신학부, 환경공학부), 치위생학과]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학탐구 영역 중 1개 이상 3등급 이내 [의예]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학탐구 영역 중 3개 이상 1등급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업계고교출신자 특별 전형 	[인문사회계, 보건계열(인문)] 언어, 수리(나), 외국어, 사회탐구 영역 중 2개 이상 3등급 이내 또는 1개 이상 2등급 이내 [의공학부, 보건계열(자연)]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학탐구 영역 중 2개 이상 3등급 이내 또는 1개 이상 2등급 이내 [자연계열, 공학계열(컴퓨터정보통신학부, 환경공학부)]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학탐구 영역 중 1개 이상 3등급 이내

※ 실업계고교출신자 특별전형 지원자는 탐구영역에서 직업탐구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과목 선택은 자유선택 3과목임

4. 기타

1) 정시모집은 '가' 군 50%, '나' 군 50% 선발

(단, 의예과, 디자인학부(인문/자연), 간호학과(인문), 작업치료(인문)는 '가' 군에서만 선발하고 디자인학부(예체능)과 간호학과(자연), 작업치료(자연)는 '나' 군에서만 선발함)

2) 디자인학부, 간호학과 모집 시기별 모집 인원

- 디자인학부, 작업치료 : '가' 군에서 50%, '나' 군에서 50% 선발
- 간호학과 : '가' 군에서 30%, '나' 군에서 70% 선발

수시 모집

Q 수시 2학기 1차(수시 2-1차)와 2차(수시 2-2차)는 모집 시기가 동일합니까? 그렇다면 수시 2-1차와 수시 2-2차 모집 전형(예: 글로벌리더와 언더우드 국제대학(UIC) 전형)에 복수지원이 가능합니까?

A 수시 2-1차와 수시 2-2차는 원서 접수시기는 같지만 시험일자가 다르므로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수시 2-1차 또는 수시 2-2차 각 전형 내에서는 복수 지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수시 2-1차에서 실시하는 교과성적우수자 전형과 특기자 전형에는 복수지원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수시 2-1차에서 실시하는 글로벌리더 전형과 수시 2-2차에 실시하는 언더우드 국제대학(UIC) 전형에는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Q 졸업생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은?

A 수시 1학기 UIC 전형, 수시 2-1차의 특기자 전형, 글로벌리더 전형, 영어능력우수자 전형(원주), 지역고교우수자 전형(학교장추천자, 원주)과 수시 2-2차의 UIC 전형, EIC 전형(원주)은 모두 삼수생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수시 2-2차의 일반우수자 전형, 사회기여자 및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연세한마음장학 전형은 졸업연도에 대한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시 2-1차의 교과성적우수자 전형과 조기졸업자 전형은 고교 재학생만 지원이 가능하므로 졸업생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Q 검정고시 출신자가 지원 가능한 전형은?

A 수시 2-1차는 음악대학 일반우수자 전형과 체육특기자 전형의 개인종목에 한하여 검정고시 출신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시 2-2차의 모든 전형에 검정고시 출신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UIC, 일반우수자, 사회기여자 및 사회적배려대상자, 연세한마음장학(서울), EIC(원주) 전형은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Q 해외고 출신자가 지원 가능한 전형은?

A UIC 전형, 수시 2-1차의 글로벌리더 전형, 특기자 전형, 영어능력우수자 전형(원주), 수시 2-2차의 일반우수자 전형, 사회기여자 및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EIC 전형(원주)에 지원 가능합니다. 단, 특별전형의 경우에는 해당 전형에서 제시하는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Q 수시모집에서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은 어떤 방식으로 반영합니까?

A 2008년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는 학생부에 기재된 교과성적의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화한 후, 우리대학에서 정한 환산 백분율을 적용합니다. 2006년과 2007년 졸업생의 경우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과목별 석차(동석차 적용)와 수강인원을 적용한 석차백분율을 이용합니다.

Q 학생부 반영 교과목은 작년과 동일합니까?

A 수시모집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관련 교과목이 반영되고 그 외의 과목은 9등급인 경우에 한하여 일정점수 감점됩니다. 단, 조기졸업자 전형에서는 사회 관련 과목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Q 비교내신 대상자는 어떻게 비교내신을 반영하게 됩니까?

A 수시모집 일반우수자 전형, 사회기여자 및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연세한마음장학 전형에서 기본적으로 학생부를 이용하여 교과성적과 비교과성적을 평가할 수 없는 지원자는 전원 비교내신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국내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지원자(삼수생까지)들이 학생부에 의한 교과, 비교과 평가를 받게 되며, 이들을 제외한 지원자는 기본적으로 비교내신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다만, 국내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경우라도 연속해서 2학기 이상의 학생부 성적이 누락된 경우에는 비교내신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비교내신은 자신이 지원한 모집단위 지원자들의 논술성적을 이용하여 평가합니다. 그 이외의 특별전형은 비교내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Q 수시모집 일반우수자 전형에서 학생부 비교과영역은 학생부에 기재된 사항만 반영한다고 하는데 재수생인 경우 고교졸업 이후의 것은 따로 제출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검정고시와 해외고 출신자는 어떻게 평가 받습니까?

A 비교과영역에 대한 평가는 학생부에 기재된 사항만을 평가하므로 고교졸업 이후에 취득한 서류라면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부가 없는 지원자도 비교내신을 적용하므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Q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반영되는 전형은?

A 수시 2-1차의 교과우수자 전형과 특기자 전형(인문사회: 전체, 자연: 부분), 수시 2-2차의 일반우수자 전형, 사회기여자 및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연세한마음장학 전형입니다.

Q 수시 2-2차 일반우수자 전형의 우선선발은 별도로 지원합니까?

A 별도의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일반우수자 전형에 지원하면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50%를 학생부 20%와 논술 80%로 우선선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만족하는 지원자 중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지원자에 대하여 우선선발하게 됩니다. 인문계는 언어와 외국어 영역이 모두 1등급 이내, 사회계는 수리(나)와 외국어 영역이 모두 1등급 이내, 자연계(의예·치의예 제외)는 수리(가)와 과탐영역 중 한 영역은 1등급이고 다른 한 영역은 2등급 이내이어야 합니다. 우선선발 되지 않을 경우는 자동적으로 학생부 50%와 논술 50%로 선발 됩니다.

정시모집

Q 비교내신 대상자는 작년과 같이 삼수생 이상의 졸업생입니까? 아니면 재수생도 비교내신이 반영됩니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비교내신을 반영하게 됩니까?

A 비교내신은 작년과 같이 삼수생 이상의 졸업생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비교내신 반영 방법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Q 정시모집에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됩니까?

A 일반전형은 적용되지 않고 특별전형(농어촌, 실업계, 특수교육대상자)에서만 적용됩니다. 서울캠퍼스는 작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며, 원주캠퍼스는 인문사회계, 보건계열, 의공학부, 간호학과(인문/자연)는 4개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 또는 1개 이상 2등급 이내이며, 자연계열, 공학계열(컴퓨터정보통신학부, 환경공학부), 치위생학과는 4개 영역 중 1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로 적용됩니다.

Q 일반전형 우선선발 제도는 인문과 자연계 모두 공통입니까?

A 의예과와 치의예과, 예·체능계 모집단위를 제외한 전 모집단위에서 우선선발을 실시합니다.

Q 학생부의 교과성적 석차등급과 수능등급을 어떻게 점수화할 것인지요?

A 석차등급과 수능등급의 점수화 방안은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Q 학생부는 석차등급만으로 반영합니까? 그리고 반영 교과목은 작년과 동일합니까?

A 인문사회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관련 교과목, 자연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관련 교과목이 반영되고 학년별 반영 비율은 모두 작년과 동일하며, 석차등급으로 반영합니다.

Q 논술시험은 모든 전형에 있습니까?

A 서울 캠퍼스 일반전형(가군)과 특별전형(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제외), 원주 캠퍼스 의예과는 논술시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선발로 합격한 지원자, 예·체능계열 지원자 그리고 공학계열(나군) 지원자는 논술시험이 없습니다.

연세대학교 논술시험 안내

연세대학교는 2008학년도 입학전형부터 도입되는 “다면사고형 논술”을 통해 수험생의 이해력, 분석력, 창의적 사고력, 표현력 등의 다양한 지적 능력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연세대학교는 수험생이 다면사고형 논술시험의 문제유형을 파악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2007년 2월에 인터넷 논술 모의시험을 실시하였고 계열별 우수 답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모의 시험 문제와 출제 경향 등을 파악하면 논술시험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학처 홈페이지(<http://admission.yonsei.ac.kr>)에서 관련 자료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인문사회계열

인문사회계열 논술 문제의 출제 방향

- 사전지식이 없어도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교과 과정 내의 기본적인 지식을 반영하는 문제를 출제하며, 주어진 제시문에 근거해서 답할 수 있도록 출제한다.
- 하나의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 출제를 지양하며, 다양한 답을 유도하여 수험생들의 창의적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 영어나 한문 문장을 제시문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하며, 한자 단어를 쓸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는 한글표기를 우선하기로 한다. 고등학교 교과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어려운 개념이나 단어에 대해서는 간략한 설명을 첨부하도록 한다.
- 단순 암기에 의한 반복학습 능력이 아닌 창의적인 사고력을 평가한다.
-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반영하는 문제를 출제하고, 가능한 한 고등학교 교과서나 교과서에 담긴 주제를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고전 텍스트를 제시문으로 활용한다.
- 다면사고형의 문제 출제를 위해 통계자료나 기본적인 수학적 논리, 그리고 과학적 주제를 묻는 제시문과 문항을 포함하여 출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학을 포함한 자연과학적 지식의 검증은 기본적인 수준에 그치도록 한다.

인문사회계열 논술 모의시험 문제

※ 아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십시오. (세 문제 모두 답하십시오.)

제시문 (가)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이기적이거나 제한된 수준의 관용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상호호혜적인 이익이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쉽게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상호호혜적인 행동이라도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친절에 대한 보상은 상대의 관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매우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중략]

당신의 옥수수밭은 오늘 여물고 내 것은 내일 여물 것이다. 만약 오늘 내가 당신이 추수하는 것을 돕고 내일 당신이 나를 돕는다면, 이는 우리 둘 모두에게 유익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아무런 호의도 갖고 있지 않으며, 당신 역시 나에게 아무런 호의가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을 위해서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단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보상에 대한 기대는 나를 실망시킬 것이며, 나로 하여금 헛되이 당신의 호의에 매달리게 할 것이다. 따라서 나는 당신이 혼자 일하도록 내버려둘 것이며, 당신도 동일한 방식으로 나를 대할 것이다.

제시문 (나)

미나모토쥬에는 선술집과 음식점, 가라오케 등이 기미우라 역을 중심으로 난 좁은 골목을 따라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음식점과 술집들은 각기 나름대로의 분위기를 갖추고 있으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주 찾아가는 곳을 또 찾아가고 있다. 사람들은 약속을 할 경우에 서로가 잘 아는 곳에서 모이고 누구를 만나려면 어디에 가야하는지를 알고 있다. 이발소를 하는 마에바시를 만나려면 요네다가 하는 장어구이 집에 가야 하고, 목수 일을 하는 카미를 찾으려면 마에하라 자매가 운영하는 선술집에 가면 된다. 쓰노다 아즈마는 학부모 모임에서 사람들과 식사를 한 후에 커피를 마시기 위해 어린 시절 친구의 형이 하는 커피숍에 간다.

새로운 사람들이 이사를 오게 되면, 이사 온 사람들은 바로 조그만 케이코나 '데누구이(수건의 일종)'를 가지고 자신들을 소개하는 인사를 가게 된다. 일종의 공식적인 인사인 셈이다. 이러한 인사는 새로운 가구가 주위의 이웃들과 공식적인 관계를 맺는 시작이다. 사람들은 이웃이 집을 비운 사이 서로의 집을 봐주고, 주부들은 특별세일이나 새로 개점한 가게에 대한 정보를 나누며 여행에서 돌아와서는 지방 특산물을 선물로 건넨다.

도쿄 인근 지역에서 야채를 재배하는 농민들은 한 달에 두서너 차례 미나모토쥬를 방문한다. 이들은 주로 할머니들인데 자신들이 가져올 수 있는 만큼의 야채를 가지고 와서는 거리에서 팔기보다 벌써 수 년 째 방문해온 미나모토쥬의 가정용 한 집 한 집 찾아가고 있다. 쓰노다 아즈마는 자신이 어릴 적부터 집에 찾아온 야채 파는 할머니에게서 야채를 사는데, 자신이 필요한 것보다 좀 더 사서 아이를 시켜 이웃에도 나눠준다. 지난번에 이웃이 보낸 선물에 대한 보답이다.

미나모토쥬의 사람들은 도쿄 시내 어딘가에 사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개는 자신들의 집에서 장례식을 치른다. 그렇다고 해서 장례식이 간단한 것은 아니다. 장례식의 많은 부분은 장의사의 협조로 이루어진다. 장례에 필요한 제단, 향로, 제등, 관 등은 모두 장의사가 준비한다. 장례식에서는 초등학교 근처에 사는 모리구치 씨가 염과 같은 전문적인 일을 담당한다. 대신에 미나모토쥬의 주민과 이웃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한다. 특히 죽은 이가 마지막 헤어짐의 인사를 하는 고구베쓰시키(告別式) 바로 전날에는 밤을 새워 쓰야(通夜)를 하면서 조문객을 맞이하고 접대를 한다.

제시문 (다)

어디서 왔는지 고양이 한 마리가 야옹야옹 울고 있었다. 어둠이 밀려왔을 때 손에 장갑을 낀 여자가 다가와서 고양이를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면서 자루에서 먹이를 꺼내주었다.

그때 사르트르가 이렇게 제안해 왔다. '2년 동안 나는 파리에서 살 수 있도록 손을 쓰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가능한 한 친밀한 생활을 하자. 2, 3년 동안 헤어져 살게 되더라도 어딘가 세계의 한 모퉁이에서, 예를 들면 아테네 같은 곳에서 재회하여 다시 얼마 동안 공동생활에 가까운 생활을 영위하자. 우리는 결코 완전히 남남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둘 중에 어느 쪽인가가 상대를 찾을 때 반드시 응할 것이며 우리 두 사람의 결합 이상 가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속박과 습관이 되지 않도록 온힘을 다하여 그런 부패에서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동의했다. 나는 사르트르가 예정하고 있는 이별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은 아득한 미래의 일같이 생각되어 미리부터 마음을 쓰지는 않기로 했다. 그래도 가끔 두려움이 내 마음을 스쳐갈 때 나는 그것이 나 자신의 허약함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극복하기 위해 애썼다. 사르트르가 약속에 철저하다는 점을 나는 이미 체험하고 있었으며, 그 점은 내 마음의 버팀목이 되었다. 그의 경우, 하나의 계획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의 어떤 순간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만일 그가 "22개월 후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위에서 오후 5시에 만나자."고 했다면, 나는 정확히 22개월 후 오후 5시에 아크로폴리스 위에서 그를 재회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나는 사르트르가 나보다 먼저 죽지 않는 한 그가 내게 불행을 안겨줄 리 없다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이다.

이 2년의 계약기간 동안 우리는 서로가 이론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유를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우리는 이 새로운 관계에 주저 없이 모든 것을 쏟을 작정이었다. 우리는 또 하나의 약속을 했는데, 그것은 둘 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서로 숨기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약속이었다.

제시문 (라)

A. 각국의 인구 대비 법조인구 및 변호사 1인당 인구(2005년)

국 가	인구(명)	법조인구(명)	변호사 1인당 인구(명)
한국	47,000,000	8,200	5,700
일본	120,000,000	24,000	5,247
프랑스	58,000,000	38,000	1,500
독일	82,000,000	142,000	578
영국	52,000,000	95,000	557
미국	276,000,000	1,030,000	266

B. 한국의 인구 대비 변호사 수 및 법률상담 건수 추이(1994~2001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법률상담 건수(건)	634,128	683,334	1,082,152	1,161,231	1,590,768	1,599,724	1,894,228	3,283,801
개업 변호사 수(명)	2,851	3,079	3,188	3,364	3,521	3,887	4,228	4,618
인구 10만 명 당 변호사 수(명)	6.4	6.8	7.0	7.3	7.6	8.3	9.0	9.8

문제 1 제시문 (가)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며, 이 문제에 대해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는 각각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비교하십시오.(배점 : 30점)

문제 2 서로 다른 방식의 인간관계를 제시한 제시문(나), 제시문(다) 가운데 본인은 어떤 방식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히십시오.(배점 : 35점)

문제 3 제시문(나), 제시문(다)를 참조하여 제시문 (라)의 두 표에 나타난 한국사회의 특징과 변화를 해석하십시오.(배점 : 35점)

출제의도

이번 모의시험에서는 개인들 사이의 협력과 이를 통한 사회의 구성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가 제시문 (가)에 나타나 있으며, 제시문 (나)와 (다)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보여주고 있다. 제시문 (나)와 (다)는 개인들 사이의 상호관계에 기초하여 사회를 구성하는 데 서로 다른 원리가 있음을 이해하고 그 원리들을 서로 비교하여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들이 모여 사회를 구성할 때 개인들의 동기와 목적은 서로 다를 수 있다. 크게 보아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원리는 정신적, 감정적 유대가 전제된 공동체적 관계와 개인들 사이의 공식적 약속을 중시하는 계약적 관계로 나누어질 수 있다. 흔히 감정적 결속에 입각한 개인들 사이의 협력은 가족이나 친구집단에서 나타나며, 계약에 입각한 인간관계는 상거래나 보다 공식적인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진다. 제시문 (나)와 (다)는 이러한 인식에 더하여 계약적 관계가 가족이나 연인관계에서도 성립될 수 있으며, 감정적 결속이 지역공동체와 같은 보다 넓은 공간과 집단에서도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보다 창의적인 생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준다. 이 문제는 학생들로 하여금 제시문을 통해서 이러한 특징들을 파악하고 서로 비교 분석하기를 요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들이 한국사회를 이해하는 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시간적 비교(한국사회의 시간적 변화에 따른 비교)와 공간적 비교(한국사회와 다른 사회의 비교)를 통해 파악하도록 요구한다.

제시문 (가)는 데이비드 흄이 1739년과 1740년에 각각 출간한『인성론(人性論) A Treatise of Human Nature』의 제1권 <오성편(悟性篇)>, 제2권 <감정편>, 제3권 <도덕편> 가운데 <도덕편>에서 따온 것이다. 흄은 정치, 종교, 역사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저술을 남겼는데, 이 글은 근대 과학의 방법론을 바탕으로 인간과 사회에 대해 면밀히 고찰한 것이다.

제시문 (나)는 문화인류학자로서 일본전문가인 베스터(Theodore C. Bestor)가 1989년에 출간한 『도쿄의 이웃(Neighborhood Tokyo)』의 일부분이다. 베스터는 영국학자 도어(Dore)의『동경의 일상생활(City life in Tokyo)』(1958년)에서 동경이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 곳의 일상생활이 상당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영위되고 있다는 점을 깨닫고 참여관찰을 다시 시도했다. 1979년에서 1981년까지 2년간 동경을 취재한 베스터는 이 책에서 고도경제성장을 겪고 있는 동경의 생활이 20년 전과 별반 차이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제시문 (다)는 시몬느 드 보부아르(Simone de Beauvoir)가 55세인 1963년에 출간한 『계약결혼(La Force des choses)』에서 발췌한 것이다. 『계약결혼』은 보부아르가 소르본 대학 시절부터 친교를 맺어 1929년부터 계약결혼에 이른 장 폴 사르트르와의 사랑과 문학적인 배경을 회고한 자전적 소설이다. 제시문은 보부아르가 사르트르와 서로 사랑하는 사이로서 왜 그리고 어떤 계약을 맺게 되었는지를 묘사하는 부분이다.

제시문 (라)의 첫 번째 표는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등의 변호사 수를 상대적으로 비교한 것이다. 도표에서 인구 당 변호사의 수는 한국과 일본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제시문 (라)의 두 번째 표는 지난 10년간 한국사회에서의 법률상담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구 당 법률상담건수로 나타내고 있다. 또 표는 변호사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보여준다.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

- **문제 의도와 상관없는 자기 주장 전개** :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준비한 답을 그대로 전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지나치게 긴 도입부와 결론** : 서론 부분은 가능한 한 짧게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논지파악의 문항(문항 1)에서는 서론과 결론 부분을 쓰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다. 기본적으로 본론 위주의 답안 작성이 바람직하다.
- **복잡한 문장구성과 문단 구성** : 한 문단이 여러 가지 생각을 담고 있거나 핵심을 드러내지 못하거나 표면적으로는 한 문장이지만 실은 그 안에 몇 개의 연결어에 의해 여러 문장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장 구성과 문단 구성은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데 방해가 된다. 문단의 핵심을 담은 주제 문장을 작성하는 연습과 짧고 분명하게 문장을 작성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
- **제시문 문장 그대로 옮겨 적기** :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특히 논지 파악의 답안에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제시문에 나타난 주장을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 표현하며, 필요시 제시문의 핵심 용어를 사용하여 논지를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적합하지 않은 예나 잘못된 인용 사용** : 예나 인용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은 좋으나 반드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예나 인용을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 **양비양시론** : 자신의 주장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양비양시론(兩非兩是論)의 답안은 적절하지 않다.

자연계열

자연계열 논술 문제의 출제 방향

- 사전지식이 없어도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교과 과정 내의 기본적인 지식, 특히 과학 분야는 과학 I에서 다루는 개념들을 사용하며, 시험에 사용된 개념이 지나치게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이에 대한 부가설명을 하도록 한다.
- 단순 계산 혹은 단순히 공식에 대입하여 풀 수 있는 문제를 지양하고, 수학의 근본적 원리 또는 과학적인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여부를 평가하려고 한다.
- 정량적 학문이라는 과학의 특성상 실험결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능력도 검증하려고 한다.
- 과학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주장의 논리적 전개능력(주장에 대한 논리적 근거 제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서술형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
- 단순 반복에 의한 학습 능력이 아닌 창의적인 사고력을 평가한다.
-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반영하는 문제를 출제하고, 가능한 한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예를 사용하여 출제하도록 한다.
- 수학의 경우, 하나의 상황에서 다양한 개념을 적절하게 적용하도록 한다.
- 과학의 경우, 하나의 자연 현상이나 대상을 물리학, 화학, 생물, 지구 과학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하도록 한다. 이는 한 분야에 편향되지 않은 이해를 보기 위함이다.

자연계열 논술 모의시험 문제

문제 1 아래에서는 주어진 정보에 근거하여 단면의 길이와 체적을 구하는 과정 각각을 설명하고 있다.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의 타당성에 관하여 논하시오. (배점 : 25점)

(단면의 면적 $A(r)$ 을 이용, 단면의 길이 $L(r)$ 을 구하는 논리)

반경이 r 인 원기둥을 45° 각도로 잘라서 생성되는 단면의 면적을 $A(r)$, 둘레 길이를 $L(r)$ 이라고 하자. r 의 함수로 단면의 면적 $A(r)$ 을 알고 있을 때, 이를 이용하여 단면의 둘레 길이 $L(r)$ 을 구하고자 한다.

반경이 각각 r , $r+h$ ($h>0$)인 원기둥을 45° 각도로 자른 단면의 면적은 $A(r)$, $A(r+h)$ 이다. 큰 단면에서 작은 단면을 제거하면 가느다란 띠가 생성되는데, 이 띠의 면적은 이 두 단면의 면적의 차이 $A(r+h)-A(r)$ 이다. 이 띠를 풀면 직사각형으로 근사할 수 있고, 이 직사각형은 밑변의 길이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단면의 길이 $L(r)$ 이고 높이는 h 이다.

$$A(r+h) - A(r) \approx L(r)h$$

$$\frac{A(r+h) - A(r)}{h} \approx L(r)$$

위의 근사는 h 가 작아질수록 정교하여지므로, 위 식에서 h 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등식이 성립한다. 즉,

$$L(r) = \frac{d}{dr} A(r)$$

(구의 표면적 $S(r)$ 을 이용, 구의 체적 $V(r)$ 을 구하는 논리)

반경이 r 인 구의 표면적을 $S(r)$, 체적을 $V(r)$ 이라고 하자. r 의 함수로 구의 표면적 $S(r)$ 을 알고 있을 때, 이를 이용하여 구의 체적 $V(r)$ 을 구하고자 한다.

구의 반경 r 을 n 등분하여 구를 반경이 $\frac{k}{n}r, k=1, 2, \dots, n$,인 구의 표면을 이용하여 분할하면, 구는 n 개의 얇은 “양파 껍질”이 모여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각각의 양파 껍질은 표면의 넓이가 $S(\frac{k}{n}r)$ 이고 두께가 $\frac{r}{n}$ 이므로, 양파 껍질의 체적은 근사적으로 $S(\frac{k}{n}r) \frac{r}{n}$ 이다. 구의 체적은 이들 양파 껍질의 체적을 더하면 되므로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V(r) \approx \sum_{k=1}^n S\left(\frac{k}{n}r\right) \frac{r}{n} \approx \int_0^r S(x) dx$$

위의 근사는 n 이 커질수록 정교하여지므로, 위 식에서 n 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등식이 성립한다. 즉,

$$V(r) = \int_0^r S(x) dx$$

문제 2 컴퓨터를 이용하여 특정한 작업을 수행할 때, 어떻게 컴퓨터에 명령하느냐에 따라 빠른 시간 안에 원하는 정보를 획득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한다. 시간의 중요성이 빠르게 인식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원하는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생산하는 명령체계(알고리즘)를 개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임의의 n 개의 서로 다른 숫자 a_1, \dots, a_n 이 컴퓨터에 입력되었을 때 이를 증가하는 순서로 정리하는 두 가지의 다른 알고리즘을 소개하고 있다.

| 알고리즘 1 |

- 스텝 1** a_1 에 새로 이름을 주어 b_1 이라고 하자.
- 스텝 2** a_1, \dots, a_k 를 증가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b_1, \dots, b_k 라고 부르기로 하자. a_{k+1} 을 이미 정리되어 있는 b_1, \dots, b_k 와 비교하여 정리하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a_{k+1} 을 기존 b_1, \dots, b_k 의 작은 숫자부터 차례로 비교하여 a_{k+1} 이 들어가야 할 위치를 알아내고 그 위치에 a_{k+1} 을 집어넣는다.
- 스텝 3** 스텝 2를 반복하여 a_1, \dots, a_n 이 정리되면, 알고리즘을 종료한다.

| 알고리즘 2 |

- 스텝 1** a_1 에 새로 이름을 주어 b_1 이라고 하자.
- 스텝 2** a_1, \dots, a_k 를 증가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b_1, \dots, b_k 라고 부르기로 하자. a_{k+1} 을 이미 정리되어 있는 b_1, \dots, b_k 와 비교하여 정리하려고 한다.
- 스텝 2-A** b_1, \dots, b_k 중 가운데 배치되어 있는 $b_{\lfloor (k+1)/2 \rfloor}$ 와 a_{k+1} 을 비교하여, a_{k+1} 이 $b_{\lfloor (k+1)/2 \rfloor}$ 보다 작으면 a_{k+1} 을 $b_{\lfloor (k+1)/2 \rfloor}$ 의 왼쪽에 배치하고 반대의 경우 오른쪽에 배치한다.
- 스텝 2-B** a_{k+1} 이 b_l 보다 크고 b_{l+m+1} 보다 작다고 하자. 이제 a_{k+1} 을 b_l 와 b_{l+m+1} 사이에 배치되어있는 b_{l+1}, \dots, b_{l+m} 와 비교하여 정리하려고 한다. b_{l+1}, \dots, b_{l+m} 중 가운데 배치되어 있는 $b_{l+\lfloor (m+1)/2 \rfloor}$ 와 a_{k+1} 을 비교하여, a_{k+1} 이 $b_{l+\lfloor (m+1)/2 \rfloor}$ 보다 작으면 a_{k+1} 을 $b_{l+\lfloor (m+1)/2 \rfloor}$ 의 왼쪽에 배치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오른쪽에 배치한다.
- 스텝 2-C** 스텝 2-B를 반복하여 a_1, \dots, a_{k+1} 이 정리되면, 스텝 2를 종료한다.
- 스텝 3** 스텝 2를 반복하여 a_1, \dots, a_n 이 정리되면, 알고리즘을 종료한다.

- (1) 위 두 알고리즘 중 어느 알고리즘이 우수한지 판단하기 위하여 알고리즘의 성능을 측정하는 지표를 만들고, 지표의 적정성에 관하여 논하시오. (배점 : 10점)
- (2) (1)에서 제시한 지표를 이용하여 어느 알고리즘이 우수한지 판정하고, 판정근거를 제시하시오. (배점 : 15점)

문제 3 물에 관한 아래 지시문들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A) 지표면의 70%는 해수, 호수, 강 등의 물로 덮여 있으며, 지구의 구성요소인 대기권, 수권, 암권, 생물권 사이에서는 끊임없이 물의 이동이 일어나는데 이를 '물의 순환'이라고 한다. 지구상 물의 분포는 해수가 물의 총량의 97%를 차지하고, 눈, 얼음, 호수, 강, 지하수 등으로 존재하는 담수는 2.9%, 그리고 수증기는 0.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 간에는 동적인 평형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또한 지구상 물의 총량 중 98.1%는 액체 상태, 1.8%는 고체 상태, 0.1%는 기체 상태로 있으며, 이들은 상호전환을 통하여 지구상 에너지와 물질 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가 직접적인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담수인데, 그 저장량은 물의 순환과정 중 지표면을 따라 흐르는 물의 유입속도, 토양의 성질, 식물의 분포, 인간 활동에 의한 환경변화 등에 의하여 달라진다.



물의 순환이 균형을 이루는 것은 지구상 생명체의 활동에 매우 중요하다. 최근 지구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 균형이 깨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구온난화가 일어나서 기온이 올라가면 물 증발량이 높아지면서 공기에 함유된 수증기량이 증가하고 강수량이 올라가게 되어 홍수 위험은 높아진다. 이와 동시에 증발량이 강수량 보다 많아 가뭄이 오게 되는 등 홍수와 가뭄이라는 극단적인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물 부족국가로 분류된 우리나라의 경우, 연평균 강수량 1283mm로 세계 평균인 973mm보다 높지만 좁은 국토에 인구가 많아 1년 강수량을 총 인구수로 나누면 그 수치는 세계 평균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이마저 홍수 기인 6~9월 장마와 태풍 기간에 강수량의 3분의 2가 집중되어, 갈수기인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6개월 동안 내린 비의 양은 1년 강수량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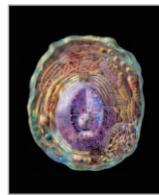
(B) 지구상에는 각각의 생명체가 살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나노크기에 불과한 미생물에서부터 높이가 100m에 이르는 나무도 있으며, 그리고 육상 또는 수중에 사는 동물 등 생명체의 생존 형태는 다양하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세포들이 모여 조직을 이루고 조직이 모여 특정 기능을 가진 기관을 이루며, 기관들이 모여 하나의 개체를 구성한다. 세포는 그 내부에 생명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핵과, 그 주위에 제각기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세포내 소기관(미토콘드리아, 엽록체,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 리소좀, 액포 등), 세포막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소우주라고 볼 수 있다. 물은 세포 무게의 70 -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명현상이 일어나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생체 내에는 생존에 필요한 탄수화물, 단백질, 무기염류 등 다양한 영양소들이 물속에 녹아있고,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의 합성과 분해에 물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고 이들 물질의 이동 또한 물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구상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화학반응과 생물학적 과정들은 물이 갖는 독특한 물리적/화학적 특성과 긴밀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



〈육상 및 수중 동식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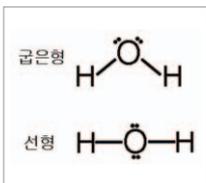


〈인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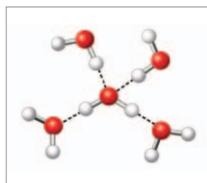


〈세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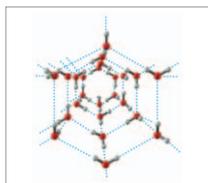
(C) 물(H₂O) 분자는 2개의 수소(H) 원자와 1개의 산소(O) 원자가 공유결합을 통하여 굽은형(각도=104.5°)의 극성 분자구조를 형성한다. 고체와 액체상태의 물분자들은 수소결합을 통하여 강한 분자간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 분자들에 비하여 독특한 물리적/화학적 특성들을 갖는다. 고체상태의 물(즉, 얼음)의 경우, 1개의 물 분자 주변에 4개의 물 분자가 결합된 사면체의 수소결합 구조를 형성하며, 전체적으로 눈의 결정체에서 볼 수 있는 육각형 대칭의 배열을 갖게 된다(그림 참조). 물분자간 수소결합의 세기는 수소결합 1몰당 20kJ 정도인데, 이는 유사한 수소결합을 갖는 분자들이나 수소결합을 갖지 않는 분자들의 분자간 상호작용의 세기보다 더 크다.



〈물분자〉



〈사면체 수소결합〉



〈얼음의 수소결합〉



〈눈 결정〉

물은 투명하여 가시광선의 빛을 잘 통과할 뿐만 아니라, 밀도, 비열, 어는점과 끓는점, 표면장력 등에서 다른 물질에 비해 독특한 특성들을 갖는다. 순수한 물의 밀도는 액체상태(물)보다 고체상태(얼음)에서 더 작고, 염이 녹아있는 해수는 담수보다 밀도가 더 크다. 물의 비열은 유기용매 분자들(에탄올, 헥산 등) 보다 더 크고 구리, 철 등 금속에 비해서는 10배 이상 더 크다. 물의 어는점과 끓는점은 유사한 크기의 분자들에 비해 높고 물은 상온에서 액체상태로 존재한다. 또한 물은 표면장력(표면적의 증가에 대한 저항력)이 커서 구형의 물방울을 유지하려는 성질을 갖는다. 상온에서 1몰의 물을 수증기로 기화하는데 44kJ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0°C의 얼음을 0°C 물로 녹이는데 6kJ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 (1) 물의 독특한 물리적 특성들과 화학적 특성들이 지구상 생명체(미생물, 육상/수중 동식물 포함)의 생존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실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배점 : 10점)
- (2) 물 분자의 구조가 굽은형이 아니고 선형(각도=180°)이라고 가정할 때, 물 분자의 수소결합 구조와 물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들이 지구상 생명체의 생존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배점 : 15점)
- (3) 물의 순환과정(그림참조)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각 단계에서 에너지의 이동과 물질의 변화(농도변화, 이동 등)가 어떤 물리학, 화학 또는 생물학적 원리가 적용되어 일어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배점 : 10점)
- (4) '물의 순환의 균형'에 영향을 주는 인간 활동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설명하고, 물 부족국가인 우리나라의 수자원 확보 방안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배점 : 15점)

출제의도

이공계 수리논술은 논리를 구성하는 능력, 현실을 묘사하는 모델링 능력, 과학적인 추론 능력을 측정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구성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여 수학적 논리를 구성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순수 수학분야에서 문제를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현실을 묘사하는 모델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순수 수학과 과학이 만나는 상황을 문제로 채택하였고, 논리적인 과학적 추론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주제에서 세 번째 문제를 구성하였다.

순수 수학적인 문제에서는 계산을 위주로 하는 기존의 문제형식을 탈피하였으며, 중요도가 떨어지는 지엽적인 문제의 출제도 지양하였다. 계산문제가 아닌 근본적인 개념, 새로운 아이디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종합하는 능력을 측정하도록 문제를 구성하였으며, 수학 (혹은 과학)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인 미분과 적분을 중심으로 문제를 구성하였다.

순수 수학과 과학이 만나는 상황을 문제로 구성된 두 번째 문제의 경우 특정한 현실의 문제가 과학적인 의미가 있고, 수학적 분석이 의미가 있도록 상황을 설정하였다. 이 상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적절한 모델을 제시하도록 하였고, 이 모델링을 통하여 구체적인 계산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논리적 추론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의미있는 결론을 유추하도록 문제를 구성하였다.

과학 문제의 경우 하나의 일반적인 자연 현상을 테마로 지정하였다. 자연 현상은 물리, 화학, 생물이 제각기 자연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이해가 중요하다. 따라서 하나의 자연현상을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여 다양한 결론을 유추하도록 문제를 구성하였다.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

- **비논리적 문장** : 논술은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인 글로써 서술하는 것이다. 수리논술의 경우에도 이 기본적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논리적인 추론을 바탕으로 결론을 유추하여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도록(타인 혹은 채점자를)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설명하지 않고 암기한 사실을 나열하는 답안** : 과학적인 지식에 기대어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단순히 사실을 열거하는 답안은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을 효과적으로 표출하기 어렵다. 사물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일이 필요하다.
- **상황을 적절히 설명하는 수식이나 아이디어 전달에 도움이 되는 그림** : 수리 논술에서 적절한 수식과 그림의 활용은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 **단순한 수식의 나열** : 단순한 수학문제를 풀듯이 수식에서 시작하여 수식으로 끝나는 답안은 자신의 생각을 정확히 전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수식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도움이 되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해가 된다.

연세대학교 장학제도 안내

2006학년도 장학금 지급 현황(학부)

구분	수혜인원(명)	수혜금액(원)	장학금 종류
학교 장학금	8,741	14,978,858,800	15
기탁기금 장학금	433	638,808,200	270
교외 장학금	3,174	11,092,249,225	150
합계	12,348	26,709,916,225	435

신입생 장학금 지원안내

연세대학교는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장학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2008학년도 신입생 장학금 종류와 선발 및 지급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캠퍼스

장학금 명칭	장학금액 및 조건	선발기준	
연세 우수학생육성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학부·대학원 정규학기 • 매월 교재비(학부 : 30만원, 대학원 : 40만원) • 기숙사비 전액 지원 • 교환학생 경비 지원 : 500만원 • 유럽체험학습 : 1학년 여름방학 중 • 유학정착금 지원 500만원 • 개인 지도교수 및 전담 학사지도사 배정, 학술동아리 지원, 우수학생 육성을 위한 다수의 특별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세 우수학생 육성프로그램 선발기준에 따름 • 선발인원 : 20명/년 (이공계 : 70%, 인문사회계 : 30%) (의예과, 치의예과, 간호학과 제외) 	
정시 모집	연세독수리 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8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3%이내 • 정시모집 정원내 최초 합격자에 한함 (예체능 계열·의예과·치의예과·간호학과 제외)
	연경뉴리더 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8학기 • 교환학생 파견 시 1년간 1천만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발인원 : 정시 모집 상경계열, 경영계열 각 5명 • 정시 모집 정원내 최초합격자 중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상위 30% 이내에 해당하며, 가정 형편이 어렵고 진취적인 성향을 가진 학생
	경영대학 • 우수신입생 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8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5%범위내 (정시모집 정원내 최초 합격자에 한함)
	언론홍보영상학부 • 우수신입생 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2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10%범위내 (정시모집 정원내 최초 합격자에 한함)
	신과대학 • 우수신입생 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8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5%범위내 (정시모집 정원내 최초 합격자에 한함)
	생활과학대학 • 최이순 지도자 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8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5%범위내 (정시모집 정원내 최초 합격자에 한함)
수시 모집	연세 한마음 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8학기 • 도서비 2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시 2학기 • '연세한마음장학전형' 입학자

2. 원주캠퍼스

장학금 명칭	장학금액 및 조건	선발기준
우수신입생 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금 전액(입학금 제외), 8학기 • 연세대학교 장학금 지급기준에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시모집(정원내)에서 수능 필수 응시영역이 모두 2등급 이상인 자(원주의예과 제외) 중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3% 범위 내에서 선발

장학금 종류

구분	장학금 종류	내용
신입생	우수학생 장학금	특정분야에 탁월한 신입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전액 및 교재대금을 지급하고 특별 관리 및 육성 지도함
	연세독수리 장학금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3%이내에서 선발(정시모집 정원내 최초합격자에 한함)하며 8학기 동안의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을 지급
	단과대학 장학금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5%(10%)이내에서 선발(정시모집 정원내 최초합격자에 한함)하며 8(2)학기동안의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을 지급
	연세한마음 장학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연세한마음장학전형에 합격한 학생이 차상위계층까지 수혜요건 유지 시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도서비를 지급
재학생	일반장학금 (대학배정장학금)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며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2.50 이상인 학생 중 가정 형편이 곤란한 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가계곤란장학금과 성적우수장학금으로 구분하여 등록금 전액, 반액, 1/3액 등으로 차등지급
	연세동문회 장학금	기초학문 분야의 신입생 또는 국가고시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등록금 전액 및 교재비 (월50만원)를 지급
	국가고시 장학금	재학 중 사법, 행정, 외무, 기술고등고시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의 1차 합격자와 공인회계사, 변리사 최종 합격자에게는 국가고시장학금(80만원)을 합격한 다음 학기에 1회에 한하여 지급
	국가유공 장학금	국가유공대상자 본인에게는 성적에 관계없이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급. 또한, 국가유공자의 자녀로서 직전학기 학업성적 2.00 이상,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학업성적 1.60 이상인 학생에게 입학금, 등록금의 반액을 지급하며, 나머지 반액은 국가보훈처와 통일부에서 지급
	근로장학금	교내 각 부서에 배치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학생에게 일정액을 지급
	연세복지 장학금	교직원의 직계자녀로서 학업성적 2.00 이상인 학생에게 지급
	총학생회 생협장학금	생활협동조합에서 매학기 출자하는 장학금으로서 학업성적 2.50 이상이고 생협에 출자 하였으며 가정형편이 곤란한 학생에게 지급
	봉사장학금	총학생회 및 학생자치 기구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학교발전(학생활동)에 기여하는 학생에게 일정액을 지급
	평화장학금	연세춘추 기자 및 연세대학교 교육방송국 기자로 종사하는 학생에게 일정액을 지급
	신학장학금	신과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장차 목회를 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지급
	우수선수 장학금	우수선수에게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급
	기금장학금	동문, 개인 독지가의 기금에 의하여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270여 종이 있음
	교외장학금	이공계무상국가장학금, 후배사랑장학금, 이종환장학재단 등 교외 장학재단과 개인으로부터 학교의 추천이나 장학재단 지정에 따라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170여 종이 있음

※ 모든 장학금은 연세대학교 장학금 지급 기준에 따릅니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서울캠퍼스 120-74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입 학 처 (02)2123-4131
원주캠퍼스 220-710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234 입학관리부 (033)760-2828
<http://admission.yonsei.ac.kr>